



매년 남가주 교계가 연합해 진행하는 사랑의쌀 나눔운동에 대해 관계자들이 설명하고 있다.

재난대응 최고단계 기독교계 필리핀 구호 나서

태풍 '하이옌'으로 인한 필리핀 현지의 피해가 극심하다. 필리핀 방재당국은 11일 오전 총 사망자수가 약 1만2천명이며, 전체 인구의 4%에 해당하는 450만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했다. 필리핀 정부는 구조작업에 5억3,300만 불을 투입할 예정이다.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기독교 구호단체들도 현지에 인력을 파송해 구호활동을 펼치고 있다. 월드비전은 11일 재난대응 최고단계인 카테고리 3(Global Response)을 선포했다. 태풍 피해지역에는 그동안 월드비전이 지역개발사업을 진행하던 20개 지역이 포함돼 있다. 약 40,000명의 월드비전 결연아동 가정이 이번 태풍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필리핀 월드비전에서는 3개 조의 피해조사팀을 보홀(Bohol), 사마르&레이테(Samar&Leyte), 그리고 파나이(Panay) 섬에 급파했다.

월드비전은 6백만 불 모금을 통해 총 22만5천 명의 피해주민을 대상으로 긴급구호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독일 월드비전의 지원으로 담요 5,400장과 천막시트 3,000장을 조달할 긴급 공수 비행기도 마련했다. 월드비전은 먼저 식량 및 비식량 물자 지원, 식수위생 시설, 긴급 주거지, 그리고 아동 보호에 집중하고, 이를 위해 현지 직원 500명을 투입할 예정이다.

기아대책도 11일 긴급구호 선발대를 파견했다. 필리핀 기아봉사단 3인과 본부 선발대 2인이 세부에서 합류해 타클로반 피해 지역으로 이동했다. 기아대책은 배이스캠프 구축 및 지역 내 필요 사항 파악, 물품 확보 및 배분에 대한 정부/군병력 협조를 요청하고, 현지 조사에 따라 활동 지역이 정해지는 대로 물품 구입 및 배분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구호팀을 파견할 계획이다.

“사랑의 쌀 나눔운동” 2013 연말도 따뜻하게

소외된 이웃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제 5차 '2013 사랑의 쌀 나눔운동'이 올해도 교계와 한인사회가 연합해 펼쳐진다. 이 운동은 남가주교협이 주관하고 LA총영사관, 미주성시화운동본부, 한국일보, 중앙일보, 남가주목사회, OC교협이 공동주최한다. 나눔 대상은 교회 및 사회봉사기관, 생활보호 대상자, 독거노인, 어려운 학생들, 개인신청자 등으로 총 1만명에게 쌀 1만포 배부를 목표로 하고 있다.

13일 오전 11시에 남가주교협 및 참여 단체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교협 회장 박효우 목사는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가까운 타민족에게도 섬기는 장을 마련해 감사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사랑의 쌀 나눔운동 시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쌀 배부가 온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박효우 목사는 “각 지역의 교회나 단체에서 금홀 사역지와 연계해 이웃들에게 직접 배부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밝혔으며, 민경영 목사(OC교협 회장)는 “지난해 교회에서 쌀을 배부했을 때 사정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가져갔다. 이번에는 직접 어려

운 분들을 찾아가 나눠줄 구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운동 후원모금기간은 11월 13일부터 12월 31일(48일간)까지이며, 배부 일시는 12월 21일(토)과 28일(토) 각각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이며 LA총영사관, 교회 외 10여 곳 지정 배부처에서 이뤄진다.

주최 측은 교회 및 사회단체에 후원모금 시 알리사항으로 △추수감사절이나 성탄절 헌금 중 일부나 사랑의 쌀 나누기 특별헌금을 통해 남가주 1200여 모든 교회가 함께 후원에 동참하고 앞장설 것 △연말연시

를 맞아 남가주 한인사회 각 단체 모임 시 특별후원금을 모아 줄 것 △후원금은 주관처 주소나 성금접수처인 중앙일보, 한국일보로 보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재소자선교회 최순일 박사가 처음으로 성금을 주최 측에 전달했다. 기자회견에는 LA한인회, 남가주장로회, 남가주여성목사회, 기독교실업인회, 미주한인사업가협회, 남가주초남향우회, 원로목사회, LA서울라이온스클럽, 미주한인재단 등에서 참석했다.

▷후원 문의: (323)735-3000

WCC 총무 “동성애라는 주제가 ‘일치’ 방해해선 안돼”

세계교회협의회(WCC) 올라프 트베이트 총무가 총회 폐회를 하루 앞둔 7일 기자회견을 통해 '동성애' 등 이번 총회 현안에 대한 입장을 피력했다.

이번 총회가 열리기 전부터 보수적 한국교회에서는 WCC의 친동성애 성향을 비판해 왔고 또 총회 중에도 WCC 내 친동성애 그룹이 부산 시내에서 집회를 여는 등 이번 총회에서 WCC는 가장 심각한 주제 중 하나였다.

트베이트 총무는 먼저 '동성애' 문제와 관련, “동성애라는 주제가 WCC의 일치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며 “개인적으로 동성애 문제로 인해 상대방을 정죄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는 “우리는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대화의 장을 계속 열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총회 도중에도 “동성애를 지지하지도, 반대하지도 않는다”

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어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서는 “한반도 분단 문제는 남북만이 아닌 세계가 함께 지고 가야 할 문제”라며 “이 문제에 대해 WCC는 최선을 다해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WCC 회원이 아니면서도 이번 총회에 참석한 ‘로마 가톨릭’에 대해선 “그들이 이번 총회에 참석한 것 자체가 영광”이라며 “앞으로 ‘일치’를 위해 로마 가톨릭과 일을 같이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는 총회 개최지인 한국에 대해 “이번 총회를 통해 한국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목적과 방향을 뚜렷하게 알게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전하기도 했다.

한편 트베이트 총무는 WCC의 재정 위기에 대한 질문에 “재정적으로 힘든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지금은 상황이 많이 나아졌다. 제네바 사무실을 다른 곳으로 이전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김진영 기자

Sarang Healthcare Ministries
 32년 전통의 주류사회 크리스천 플랜
 건강보험료를 **확** 줄일 수 있습니다.
 www.saranghealthcare.com 213-986-8119
 회원단체 CTS AmericaTV GBC CGNTV USA

나라정비
 유럽차 전문점
 SMOG CHECK
 323.734.4881 월~금: 8am~6pm 토: 8am~5pm

나라오토 텐트
 범퍼·도어·바디복원
 무료견적·Rent Car
 1201 S.Western Ave, LA 웨스턴과 12가

지긋지긋한 당뇨병 타코출
 평생을 안고가던 당뇨병이 이제는 치료가 됩니다. 새로운 당뇨 개선제 PRO-Z를 6개월만 복용하시면 지긋지긋한 당뇨병에서 해방되어 정상인과 같은 체질의 인슈린 분비를 촉진하여 줍니다.

신제품 소비자 공급가 \$76
 * 한국에서는 \$145에 판매중

재미과학자 송문기 박사는
 UCLA의과 대학 박사 40여년간 연구 개발한 PRO-Z는 미국FDA에 치료 약으로 신청중이며 주성분인 아연과 크롬으로 의약품계에서 획기적인 연구개발로 임상평가 받고 있다. 특히 미국의 재향군인 병원에서 임상실험 결과 최소한 6개월복용시혈당에 탁월한 효과로 개선됨을 확인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당뇨병의 원인
 아연은 우리 몸의 대사작용을 하는 필수 미네랄로 인슐린의 저장 및 분비에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췌장베타세포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저하되어 당뇨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췌장베타세포의 기능 복원을 개선시키는데 PRO-Z가 해결해 드립니다. 현재까지는 수만종류의 당뇨약이나 인슈린으로 혈당 유지를 하는데 그쳤으나 PRO-Z는췌장에 인슈린 분비를 확실히 개선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제제로 세계 최초로 미국 정부로부터 특별한 지원을 받고있는 당뇨 개선제입니다

621 S. Virgil st. Suit260
 Los Angeles CA 90005

213.434.1170

타주 대리점 모집
 당뇨병의 원인 치료개선제
PRO-Z

자마 뉴어웨이킹 컨퍼런스(JAMA New Awakening Conference)

“미국의 대각성은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로 부르짖는다



자마 컨퍼런스 마지막 날 집회에서 1세, 1.5세, 2세가 함께 찬양하고 있다. 이번 자마 집회에는 총 2862명이 등록해 참석한 것으로 집계됐다.

자마 컨퍼런스(JAMA NEW AWAKENING CONFERENCE)가 8일부터 10일까지 은혜한인교회에서 3일 동안 성대히 개최되고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자마 컨퍼런스는 1996년 콜로라도

에서 첫 대회를 시작한 이래, 그동안 철저히 1.5세와 2세 등 영어권 차세대들의 대각성 운동에만 초점을 맞추어 왔다. 그러다 최근에 와서, 자녀들과 함께 대회에 참석하고자 하는 부모들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 한어권 트랙도 생기게 됐다.

그런데 올해 대회는 영어권 집회, 한어권 집회에 더해 한어권 청년 집회 등 3개로 나누어서 진행됐다.

강순영 자마 부대표는 “남가주는 그 특성상 타주와 달리, 영어권과 한어권 외에 한어권 청년을 위한 집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고 이 결론에 따라 특별히 남가주의 수많은 한어권 청년들의 부흥을 위한 집회를 별도로 마련하게 됐다”고 전했다.

첫째날 영어권에서는 밥 고프, 한어권에서는 권준 목사, 한어권 청년에서는 제이 박 목사가 각각 강의를 전했다.

둘째날 오전에는 박반석(Jae Park) 목사, 김춘근 교수, 권준 목사가, 오후에는 오스 기니스, 한기홍 목사, 박수웅 장로가 각각 메시지를 전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강의하는 섹션 강연도 한어권과 영어권에서 각각

전문인, 가족, 중보기도, 선교, 교회사역, 리더십 등 다양한 분야로 나누어져 진행됐다.

10일 마지막날 저녁에 열린 연합 전체 집회에서는 자마 대표 김춘근 교수가 메인스피커로 나섰다.

김 교수는 “헌신”을 주제로 젊은이들을 향해 도전했다.

그는 “헌신은 주님께서 맡겨 주신 일을 성취하기 위해 나의 온 마음과 온 열정과 온 몸과 모든 은사와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생명을 다해 끝까지 충성하는 것”이라고 정의한 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런 헌신의 모범을 보이셨고 사도 바울도 이런 헌신을 보였으며 나 자신도 이렇게 생명을 다해 달려오고 있다”고 고백했다.

또 “미국을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주인의식을 갖고 이 나라의 청교도 신앙 회복과 부흥을 위해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헌신하자”고 도전했다.

이번 대회에는 총 2862명이 등록해 참석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참석자들은 컨퍼런스를 마치며 성찬을 함께 하고 헌신과 사명을 다짐하는 시간도 가졌다.



메시지를 전하는 김춘근 교수



가수 소향은 중보기도 컨퍼런스부터 4일간 집회를 함께 하며 찬양했다.

토마스 맥 · 김준형 기자

VISIONDRIVE HD BLACK BOX

SF코팅으로 더욱 더 고급스러워진 HD블랙박스!!

2채널 블랙박스, 전후방 또는 실내를 항시녹화

영상 보정 기능으로 정확한 영상 분석/LCD 영상 재생 / 확대보기 기능

고성능 GPS 센서 내장/ 속도, 위치, 시간, 방향까지 확인

Battery 방전 방지 시스템

구입문의 : **Joseph Park** 213.235.7836
www.carblackboxstore.com 310.902.3944

천천히 다 둘러보세요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3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가, 찰리 정

푸엔테힐스 현대 HYUNDAI
Puente Hills Hyundai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WIN HYUNDAI Assurance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중고차 고가매입 Trade In 환영

이보다 더 싸할 수는 없습니다 천불만 내시고

\$159

2013 New Sonata GLS
MSRP \$22,375
Residual \$13,648.75
12K miles per year+ tax/mo
On 3years closed end lease Drive-Off
\$1000+lic&doc on O.A.C.

“도와주세요, 월말까지 20대 더 팔아야 됩니다”

Stone Kang
888.721.9812
3462 N Peck Rd, El Monte, CA 91731

이 가격에는 서두르셔야 합니다 !!

*No purchase necessary. Must be 18 or over with Valid driver's license. Offer available to customers who must 1. Test drive a vehicle 2. Complete Credit application 3. Complete write-up on a new vehicle purchase 4. Were not able to come to an agreement on a new car purchase. 5. Must bring printed email at time of write up. Not valid for those whose credit does not qualify for loan. Limit one per household. Offer applies to new vehicles only. Cannot be combined with any other promotion. Not all customers qualify, see dealer for details.

자마 중보기도 컨퍼런스(JAMA Intercessory Prayer Conference)

한인들이여! 중보기도로 미국을 변화시키라

한기홍, 유진소, 진유철 목사, 김춘근 교수 자마 중보기도 컨퍼런스에서 강의

자마 컨퍼런스(JAMA NEW AWAKENING CONFERENCE)에 앞서 1세대들을 대상으로 한 중보기도 컨퍼런스가 7일부터 8일까지 역시 같은 장소인 은혜한인교회에서 열려 본 대회를 영적으로 준비했다.

중보기도 컨퍼런스 둘째날에는 한기홍 목사, 유진소 목사, 진유철 목사, 김춘근 교수가 강의를 맡았다.

한기홍 목사는 “교회 안에 중보기도자 세우기”란 강의에서 교회 내에 중보기도자를 양육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유진소 목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동역자로 부르셨다”는 주제의 강의에서 중보기도가 무엇인지, 왜 중보기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강의를 했다. 진유철 목사는 “성령과 중보기도”라는 강의에서 기도와 신앙 생활에 있어서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지를 설명했다. 김춘근 교수는 “인테그리티와 미국의 영적 현실”을 주제로 강의하며 지도자의 중요한 성품에 대해, 미국의 현 상황과 한인들의 소명에 대해 설명했다.

한기홍 목사는 “치열한 목회 현장



자마 중보기도 컨퍼런스에서는 강의를 마칠 때마다 다함께 중보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에 있는 목회자를 위한 중보기도 동역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아론과 훌처럼 모세의 팔을 들어줄 사역자를 세우라”고 강조하며 이 일을 통해 “교회에 기도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며 목회 사역에 큰 열매가 맺어지고 기도 동역자들의 삶에 복이 임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교회가 하나되고 교회의 열매와 승리를 모든 이들이 나눌

수 있게 된다”고도 했다. 유진소 목사는 중보기도자들에게 간절한 정성, 이뤄질 것이란 확신, 타인을 위하는 인격,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여부,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림을 중요한 요소로 꼽았다. 그는 “우리는 중보기도를 통해 전세계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기도의 위인이 될 수 있으며,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진유철 목사는 순복음 목회자답게 기도자의 영성과 성령에 대해 역설했다. 그는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역사하는 곳마다 올바른 신앙생활의 증거가 나타났다”면서 “예수님도 성령과 함께 사역하셨고, 승천하시며 성령을 보내 주셨다. 성령과 함께 기도하는 성도는 승리하며, 우리가 이 승리를 반드시 경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현대 성도의 문제는 경기장의 선

수가 아닌 구경꾼처럼 신앙생활 하는 것이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기도하고 도전해야 한다”고 외쳤다. 김춘근 교수는 “1962년과 1963년 연방대법원이 공립학교 내 기도와 성경을 금지한 이후 50-60년 만에 미국이 동성결혼, 낙태, 포르노, 기독교 박해 등 영적 타락에 빠져 들었다”면서 “한인들이 기도로 대부흥의 시대를 열자”고 독려했다. 김준형 기자



강순영, 박성규, 한기홍, 유진소, 진유철 목사

첫날인 7일 오후 자마 중보기도 컨퍼런스에서는 개회예배와 저녁집회 두 순서가 마련됐다.

개회예배에서는 강순영 목사(자마 부대표)가 “하나님의 영화로운 이름이 회복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저녁집회에서는 박성규 목사(주미세운교회)가 “지금엔 비상기도할 때”라는 제목으로 각각 메시지를 전했다.

메시지의 내용은 달랐지만 주제는 일치했다. 현 미국의 영적 위기와 타락, 부패가 극에 달했다는 점, 이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박했다는 점, 그러나 이 위기 속에서 중보기

도자들을 통해 대부흥이 임할 것이라는 점, 대부흥으로 인해 미국이 회복되고 전세계에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는 점이었다.

강순영 목사는 “지금 미국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와 조롱을 받고 있으며 교회도 박해를 받고 있다. 지금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면 대부흥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2세대들이 일어나서 생명결고 세계선교에 헌신

동성결혼 등 영적 위기 의식 고취

하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박성규 목사는 “엘리아의 제단에 임한 불이 오늘 우리에게도 떨어지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신자가로 회복되어야 한다.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중보기도 컨퍼런스는 동성결혼 합법화, 공립학교와 사회 내의 종교 자유 축소, 포르노 등 성적으로 타락한 문화 등 미국이 처한 상황에 대한 위기감이 오히려 촉매 역할을 했다.

과거에도 자마에서 여는 집회는 미국의 영적 타락을 지적하며 회개와 중보기도를 요청했고 또 한인 차세대 통한 대부흥을 예견해 왔다. 그런데 최근 연방대법원의 동성결혼 합법화와 법원들의 각종 종교자유 축소 판결 등 실질적인 사례들이 나오면서 위기감이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이 중보기도 컨퍼런스에는 약 300여 명이 참석해 강의를 듣고 함께 기도했다. 저녁집회에는 최대 800여 명이 참석해 한인들의 뜨거운 기도 열기를 과시하기도 했다.

김준형 기자

최첨단 3D 전신 스캔 검사

유전자 생약치료 200여개의 유전자를 분석하여 질병위험과 전반적인 건강상태 상담. BAM(bio active molecule; 생리활성물질)로 치료를 합니다.

특별무술수기법에 의한 완고한 통증(요통, 오십견, 무릎관절통, 좌골신경통 등)의 치료도 하고 있습니다.

다나병원 다나병원은 Well-Being과 Aging Care를 목표로 통합의학을 지향합니다. 태바 선교위원회 부설 · 다나병원의 수익금은 전액 선교 후원금으로 사용됩니다. 621 S. Virgil Ave., #252, Los Angeles, CA 90005/ T. 213.487.0691

보험료를 대폭 낮추었습니다!

가장 싼 자동차 보험 알선

음주운전자들을 위한 특별 자동차 보험

각종 사업체, 화재보험 및 모든 보험문의 환영

굿모닝 보험 213.761.9990

3550 Wilshire Blvd. #510 Los Angeles, CA 90010

24hr 한국어 서비스 KEVIN YOO

LOS ANGELES ORT COLLEGE
NON-PROFIT ORGANIZATION
ACCREDITED BY ACCET www.LAORT.edu

◆ 한국인 상담
그레이스 (Grace)
직통: 213.703.6863
Office: 323.966.5444

고소득 직업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저소득층 정부전액 보조금 지급(유자격자) - ESL Program Only -

상담필수 8:30AM~7:00PM

- 시민권 신청
- 저소득층 메디칼 신청
- FREE Food Stamp
- HEAP(Utility Ball Payment)
- Social Service
- WIA, Childcare, Transportation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 방문비자(B1, B2)를 학생비자 F-1으로 변경 가능

유학생은 ORT학교 졸업 후 워크퍼밋과 소셜NO.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GED반 개설

- 메디칼 오피스 매니지먼트 학사취득 ... Medical Office management (AA Degree)
- 건축설계 ... Computer Aided Design & Drafting
- 의사보조 ... Medical Assistant
- 약사보조 ... Pharmacy Technician
- 정부 전액보조금지급(유자격자) 학자금 보조 및 용자
- 취업추천 및 직업소개(전문 직업, 높은 취업률 보장)
- 무료 버스표, ORT 학교 장학제도 보유
- ESL ... English as a 2nd Language (ESL)1~6단계, 회화반
-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학사취득 ... Business Management (AA Degree)
- 아카운팅 AAS 학사취득 ... Accounting (AA Degree)
- 그래픽, 포토샵 ... Computer Graphic & Desktop Publishing (Adobe Illustrator)
- 편리한 수업시간 대 : 아침반, 저녁반
- 유학생을 위한 1-20 발급 (미민국 SEVIS 인정 대학, 소셜 넘버가능)
- 교수진 : 전원 남녀 미국인교수

Los Angeles : 643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48 (Wilshire+Lajolla)
Van Nuys : 14519 W. Sylvan Street, Van Nuys, CA 91411 Tel. 818.382.6000

New York : Forest Hills
Chicago : Skokie

“여호와와의 인자하심을 보배로 삼으면 복”

은혜와평강교회 2013 부흥회 개최, 강사에 김영진 목사



은혜와평강교회가 김영진 목사를 초청해 부흥회를 개최했다.

노스힐스에 소재한 은혜와평강교회(곽덕근 목사)가 2013년 부흥회를 “당신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란 주제로 8일(금)부터 10일(일)까지 개최했다.

이번 부흥회 강사는 메릴랜드에 소재한 베다니교회의 김영진 목사가 초청됐다. 8일 저녁에 김영진 목사는 ‘당

신은 무엇으로 행복해 하십니까?’(롬 5:1-11)란 설교를 통해 말씀묵상으로 인한 주님의 은혜를 강조했다. 김목사는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불과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게 됐다. 그러므로 우리는 행복한 자리에 있을 수 있다”며 “여호와

의 인자하심을 보배로 삼는 자는 영적인 성숙이 일어나게 된다. 음식을 오래 씹으면 맛있듯이,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우리 인생이 아름다워지고 풍성해 진다”고 밝혔다.

이어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연합이 만나는 곳이 십자가의 자리”라며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하고 시비하고 절망에 빠진 것과 같이 동일한 길을 걷게 된다. 하나님 말씀 묵상을 반복하다 보면 말씀은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행복한 삶과 영생의 복락을 누릴 수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밖에 부흥회에서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야 행복합니다 △기도하면 응답받을 줄 믿고 살아야 행복합니다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야 행복합니다 △가정과 교회 생활 세미나 △행복한 미래를 준비하는 성도가 되자 등의 주제로 집회 및 세미나가 열렸다.

토마스 맹 기자

재미총신신대원 남가주총동문회 회장에 석태운 목사



총회를 마친 후, 동문들이 기념촬영 했다.

재미총신신대원 남가주총동문회 정기총회가 10월 28일 세리토스동양선교교회에서 열렸다. 이 총회에서는 신임회장에 석태운 목사(세리토스동양선교교회 원로목사)가 선출됐다.

미국침례신학교 D.Min.과정 수시 입학 가능

미국침례신학교(American Baptist Seminary of the West, ABSW)는 1871년에 세워진 142년의 전통을 가진 신학교이다. 1962년에 세워진 Graduate Theological Union(GTU)의 초대 회원이기도 하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다양한 교단 전통과 국제적 교단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들이 재직하고 있다.

이 학교는 한때(1915-1968년) Berkeley Baptist Divinity School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신학 교육을 해 왔다. 현재 이 학교는 현대적이고 고전적인 성경해석, 21세기 현대 사역학, 인류문화학 사역, 설교학, 이문화간의 영성신학, 도시화 리더십, 다문화 제자도, 가정 사역 등 다양한 신학 교육 분야를 가지고 국제적 신학적 욕구에 맞춰 GTU 소속 학교들과 유기적 3

자 관계를 가지고 교육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ABSW는 ATS 초기에 인가되어있는 학교로서 M.A., M.Div., D. Min.을 공부할 수 있으며 Th.D. 그리고 Ph.D.는 GTU와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를 통해서 수할 수 있다.

학교 측은 “유학생(I-20) 및 목회학 박사과정 이수는 했으나 학위를 받아야 하는 분, 편입 등을 환영한다. ABSW는 한인 목회자들을 환영하고 있으니 와서 좋은 혜택을 누리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학교가 속한 미국침례교회(ABCUSA)는 1638년에 로저 윌리엄스(Roger Williams)에 의해 세워졌다.

문의: 213-268-9367
www.absw.edu

이지은 기자

KCCC 나사렛들 모여 부르심 재확인

지난 2일 KCCC 출신 나사렛 형제 자매들이 홈커밍데이로 한 자리에 모여 “지상명령을 향한 위대한 부르심”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 자리에는 KCCC가 시작된 1970년대에 이민온 나사렛 형제들, 1997년부터 배출된 1.5세, 2세 간사들이 양육한 나사렛 형제

들 총 80여명이 참석했다.

이 모임에서 KCCC 대표 김동환 목사는 “한국에서 건너온 나사렛 형제들과 간사들의 눈물과 헌신으로 KCCC가 시작됐다면 지금은 미주 8개 지역에서 훈련받은 간사들이 리더십으로 세워질 정도로 발전했다”며 감격했다.

안호영 주미대사 은혜한인교회서 환영리셉션



이날 안호영 주미 한국대사 환영회에 참석한 주요 관계자들.

안호영 주미 한국대사가 5일 오후 은혜한인교회에서 열린 환영회에 참석해 39지구 에드 로이스 미 연방 하원 의무위원장 및 오렌지카운티 한인 단체장들과 함께 환영 행사를 가졌다. 이날 리셉션에 앞서 안호영 대사는 6일 신연성 LA총영사와 함께 베

이커스필스 제스트로 파크(Bakersfield Jastro Park)에서 한국전 참전기념비 헌화와 참전용사들에게 메달 증정을 하며 한국전 정전 60주년과 한미동맹 6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리셉션을 호스트한 은혜한인교회

한기홍 담임목사는 “한국과 미국은 한국전쟁을 통해 피값으로 맺어진 혈맹이며, 앞으로도 두 나라의 우호관계 증진을 통해서 세계평화가 유지되며 하나님의 질서가 더욱 자리잡혀가는 역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환영 기도를 드렸다. 박창민 기자

HEAVEN EARTH TRADING Import & Wholesale

213)386-3585

SANSAM 산삼(인디언이캔야생산삼) 모든 건강식품
 매실/홍삼제품 한약제품
 Vitamin 각종 즙

(LA 한남체인내) 274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 월 \$10
-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 213.392.2323

GOLDEN GATE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골든게이트침례신학대학원에서 한영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목회학석사 (M.Div.) & 신학석사 (M.T.S.)
 위치: GOLDEN GATE SEMINARY'S SOUTHERN CALIFORNIA CAMPUS
 골든게이트남가주캠퍼스 (251 S. RANDOLPH AVE. SUITE A, BREA, CA 92821)
 등록 마감일: 12월 15일 (예비지원서 [PRE-APPLICATION]은 11월 1일)

> 한영이중언어과정은

- 미래이민교회의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목회자양성프로그램입니다.
- 세계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교회가 후원합니다.
- 본교의 자원과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성경적이고 선교적이고 세계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 탁월한 학문성과 교단의 지원 그리고 이민교회 목회자로서 온전히 구비된 미래교회지도자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본 과정은 주로 한영이중언어로 진행되며, 골든게이트신학대학원의 교수진과 자원이 충분히 반영됩니다. 북미주 최고의 학력인증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ATS)와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 (WAS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CONTACT FOR CONSULTATION: 714-256-1311 EXT. 124 KEB@GGBTS.EDU
 FOR MORE INFORMATION: WWW.GGBTS.EDU/KEB

증험으로 확인되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8:15-22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증험이란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체험을 통하여 확인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체험이 믿음에 있어서는 가장 깊은 뿌리를 내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능력, 지혜, 기적을 체험하는 것은 누구나 다 소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의 신분인 목자들이 선포한 말씀을 믿어서 실천하고 기대해 봤지만 아무 증험도 없이 끝이 나고 헛수고하는 결과만 얻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예언기도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생리는 자기 믿음의 성이나 노력을 보이지 않고 누군가가 기도해서 하나님과 잘 통한다는 말에 솔깃해서 개인의 문제 해결을 위해 그들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러한 영들의 사주를 받아 그것에 속하게 되고 교회에서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은 무시하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잘못된 영들의 지시를 통하여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속아 영육간에 잘못되는 경우를 보게 되기도 합니다.

모세가 자신의 한차례 허물로 인해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았습니다. 민수기 20:10-12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광을 드러내려 하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서 행세하는 식으로 교만하다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입박한 죽음을 의식하면서 가나안으로 함께 입성하지 못하는 자기 대신 선지자 하나를 세워 주실 것이니 하나님의 종인 그의 말을 들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다른 누가 그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으며, 만약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도 않고 거짓된 선포를 한다면 그것을 어찌 분별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걱정을 합니다.

역대하 18장을 보면 두 임금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유다의 7대 왕이었습니다. 그는 아사라는 부왕의 대를 이어 유다의 왕으로 신앙을 바탕으로 정치를 잘했습니다. 그는 아합 왕의 딸과 자신의 아들을 결혼시키고 나라끼리 세습 없이 교역을 하는 상황이었기에 각 나라의 문화가 교류되면서 신앙에 혼란을 가져오는 폐단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군사동맹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하나님이었고, 북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신임 얻어 축복받고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허락하신 조건으로 하나님 더 잘 섬기는 목적으로 활용하면 더 나은 조건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인들과 어울려 잘못 하면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재책을 맞을 수 있음을 본문을 통해 잘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왕이 엄청난 대접을 하면서 이스라엘 자체의 국력은 약하지만 유다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강해져 있으니 그 부강함을 이용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혀온 아합을 쳐부수고 길르앗 라못을 다시 빼앗자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군사 동맹을 맺은 처지이기 때문에 아합의 제안에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합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의 사상과 길르앗 라못에 가서 그 땅을 빼앗으려는 아합의 사상은 정반대였습니다. 여호사밧은 아합에게 "정컨대 먼저 여호와와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 보소서" 합니다.

아합 왕은 하나님의 존재를 귀찮게 생각했지만, 여호사밧은 하나님 절대주의 신앙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계획은 우리가 세울지언정 그 일들의 승패는 하나님 말씀에 달렸음을 알고 있는 신앙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 왕은 아합 주변에서 서식하는 400명의 선지자들을 불러 "우리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라 말라"고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합니다. 이 400명의 선지자들이 말하길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400명의 선지자가 한결같은 말을 했지만 믿기지 않아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와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이까" 했습니다. 그러자 아합 왕은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나 저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저를 미워하니이다"하며 그를 불러 오길 원치 않는 듯 말합니다.

여호사밧은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하며, 내게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알아야 하니 그 사람을 불러오게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내시를 시켜 데려오면서 "선지자들의 말이 여출일구하여 왕에게 길하게 하니 정컨대 당신의 말도 저희 중 한 사람처럼 길하게 하소서" 하며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미가야는 "여호와와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주의 종입니다.

400명 선지자 중 수석인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여호와와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합 사람을 찢러 진멸하리라 하셨다"고 말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고 말하며 아합 왕을 즐겁게 하려 합니다.

이때 미가야가 왕들 앞에 왔습니다.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라" 하고 묻자 처음에는 오면서 교육 받은 대로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저희가 왕의 손에 붙인바 되리이다"고 답합니다. 그러자 아합 왕은 "여호와와 이름으로 진실한 것만 말하라고 내가 몇 번이나 너로 맹세케 하여야 하겠느냐"고 한 말을 잘 생각해 보면 아합 왕의 생각 속에는 400명의 선지자가 한 말이 신빙성 없는

말이라는 것을 이미 짐작하고 있었다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미가야가 선포하길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 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와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그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합니다. 이스라엘의 목자가 없어진다는 것은 아합 왕이 죽는다는 것이고, 왕이 죽는다고 해도 백성들이 각각 평안히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아닌 아합 왕이라는 것입니다.

아합은 미가야의 예언이 그동안 했던 것처럼 흉한 것만 예언한다고 투정을 했습니다.

미가야는 "그런즉 왕은 여호와와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쫓아 저로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쫓아갈 것이나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쫓아갈 것이니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잠언 16:4-5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씩씩함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짓말하는 영이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거짓 예언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미가야의 뺨을 치며 "여호와와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말미암아 가서 네게 말씀하더냐"고 소리칩니다. 이것은 시드기야가 아합 왕의 총애를 입고 있는 입장에서 왕을 하나님보다 더 믿고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가야가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 날에 보리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미가야를 잡아 감옥에 가두고 자신이 길르앗 라못을 쳐부수고 승리해서 돌아올 때까지 고문하라고 명을 합니다. 그때 미가야가 왕이 살아 돌아올 것이라면 예언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하여 더욱 미움을 받아 옥에 갇혀 고문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 군과 유다 군이 연합하여 길르앗 라못으로 출전을 합니다. 아합은 미가야의 예언이 맘에 걸려 "나는 변장하고 군중으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하고는 군중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아합 왕이 보니 왕이 앞장을 섰기에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고 합니다.

이날 군인들이 "이는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싸우려 할 때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자 여호와께서 저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저희를 감동시키사 저를 떠나가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우연히도 쓴 화살이 이스라엘 왕 아합의 갑옷 솔기를 맞춰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날의 전쟁이 맹렬하여 빠져나와 치료받지 못하고 병거에서 스스로 부지하며 저녁때까지 아합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귀에 들리는 말씀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인지, 거짓으로 지어서 하나님의 말씀인 양 속임수로 들려주는 말인지를 잘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그 믿음은 온전히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대로 책임지고 이루신다는 믿어지는 믿음을 가질 때 여호사밧 왕처럼 전투장에서 왕복을 입고 앞장 서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안전을 책임져 주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문 21절 이하를 보면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는 여호와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와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받아들이고 선포되는 말씀이 성취되어감을 확인하는 믿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설교

한국 선교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크리스천투데이	7면 설교	동영상 설교 / 인터넷 설교			
경북기독신문	3면 설교	기도원연합신문		3면 설교	
해외 선교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토요일 오전 7시	목요일 낮 12시 주일 오후 10시30분	CTS TV	수요일 토요일	서부 오후3시반 / 동부 오후6시반 서부 오후6시 / 동부 오후9시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매주 월요일 오후 5시		AM880 하와이 복음방송	매주 월요일 오후 5시	
AM1310 기쁜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금요일 오후 2시30분	미국 기독교일보	5면 설교문	온라인 칼럼설교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20분~11시50분			오프라인 칼럼설교	인터넷신문 설교문

성은교회 담회장, 성은동산 원장, 예정중경 총회장, 바른목회연구원 원장,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초대 총장, 국제성서복음선교회 총재, 선목회 회장, You Tube로 지구촌 어디서든 "장재효 목사" 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 시청 가능함

提供 국제성서복음선교회 TEL. (02) 420-3351-3 / HP. 011-222-5591

2013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edu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국제개혁대학교 신학대학원

1-20발행, 각종 장학금 혜택
 KAPC 교단 직영 신학교

125 S.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niv.org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정회원 인증
 특전: Sevis I-20 발행/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정책제도 있음
 학사과정: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석사과정: 목회학 석사(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Master of Art in Religion)

2660 W.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캘리포니아 센트럴대학교

This is the hand stretched out over all nations (Isaiah 14:26)

520 S. La Fayette Park Pl., Suit #103 Los Angeles, CA 90057
 Tel. 213-381-7007 Fax. 818-435-2441
 www.myccu.us

솔로몬대학교

땅끝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28:18-20)

총장: 백지영 박사 부총장: 브랜트 프라이스 박사
 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

AMERICAN BAPTIST SEMINARY OF THE WEST, BERKELEY, CA

L A Campus 목회학 박사과정
 (매년 1, 6월 통역제공, GTU 와 ATS 정회원)

Dr. Hoi Chang Kim: (213) 268-9367
 hoichangkim@hanmail.net
 Dr. Hyo Shick Pai: drhyopai@gmail.com
ABSW President: Dr. Paul Martin www.absw.edu

미주대한신학대학

개혁주의에 기초한 성경해석과 성경에 대한 종합적 사고능력 배양,
 교회 역사와 신학에 대한 구속사적 안목의 정립,
 말씀을 실천하는 신실한 주의 종 양성,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영적인 리더십의 준비.

1325 12th Ave. Los Angeles, CA. 90019
 Tel. 323-731-9819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장 김호 박사

9월 9일 개강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미주충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사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사장 김연도 박사(D.P.M.) 총장 김근수 박사(Th.M., Ph.D.)
 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info@chongshinusa.edu
 www.chongshinusa.edu

미주성결대학교

한국성결교회 100년,
 미주성결교회 30년,
 미래를 책임지는 미주성결대학교!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i.org



미주 대한 신학대학교

부설 Sports Mission College 스포츠 미션 대학교


미주 대한신학대학교는 1948년에 설립된 한국의 대한신학대학교(현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와 대성교단의 인준을 받아 미주교역자 양성 기관으로 1995년 5월 30일에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연방정부에 등록하고 주정부교육국의 학사, 석사, 목회학 박사, 신학박사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신학대학교로 인가를 받았습니다.

본 대학에서는 신학 공부를 함과 동시에 학교에서 자체 발행하여 수여하는 스포츠 학과 **Teaching License**를 취득할 학생을 모집합니다.

모집학과

- 대학부 : 신학과 (4년) - 고졸 및 동등학력자
- 대학원 : 목회학 석사 (3년) - 대졸 및 동등학력자
- 신학교과 (4년) - 고졸 및 동등학력자
- 신학교 석사 (2년) - 대졸 및 동등학력자

Teaching License 수여 과목 : 골프, 테니스, 체조, 태권도, 승마



****차별화된 전문인 선교와 목회에 관심 있는 분은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문 의 : 310-598-0746 **최 제이콥 목사**(Sports Missionary Professor)
mr_jacob601@hotmail.com
- 주 소 : 3128 W. 8th Street., Los Angeles, CA 90005

본 웨퍼와 그리스도인의 삶



남 성 수 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독일의 설교가요 신학자였던 본 웨퍼 목사는 히틀러의 독재 정권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몸소 보여준 참신앙인이었다. 16세 때 이미 신학 공부를 시작할 정도로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있었던 그는, 깊은 사고력과 성찰력까지도 겸비해 그의 나이 20세 때 이미 신학박사 학위를 받을 정도로 당대에 뛰어난 학자였다. 후대에 그를 평가하는 모든 사람들이 본 웨퍼를 존경하고 칭찬을 아끼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의 타고난 능력과 실력에도 불구하고 한평생을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한순간 한순간을 아낌없이 삶을 살았다는 점에 있다.

1933년 히틀러가 정권을 잡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본 웨퍼는 더욱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강단에서, 교회에서, 방송에서 쉬 없이 외치며 선포했다. 이 때문에 그는 히틀러 정권에 의해 교수직을 박탈당하고, 연금되며, 감옥에까지 갇히는 고초를 당해야 했다. 그러던 중에 그의 천재적인 능력을 아까워 하던 미국 유니온신학교의 라인홀드 니이버 교수에 의해 1939년 6월 12일에 초대되어 교환교수로 미국에 들어오게 된다. 그러나 미국에 도착한지 얼마 되지 않아, 히틀러가 그해 9월 1일에 세계 제2차 대전을 일으키자 본 웨퍼는 고민하기 시작한다. 자신의 동료들과 독일 백성들이 미지광이 히틀러 때문에 전

쟁의 노예가 되고, 살상과 피흘림의 도구로 전락해 버리는 현실을 보면서 그는 다시 독일로 돌아가기로 결심한다. 이 때 그의 독일행을 만류하며 미국에 남아 살 것을 권했던 라인홀드 니이버 교수에게 본 웨퍼는 이런 편지를 남기게 된다.

“나는 독일의 역사에서 어려운 시기를 독일의 크리스천과 함께 보내야겠습니다. 만일 내가 나의 동료들과 같이 이 고난의 시기를 보내지 않는다면, 전쟁이 끝난 후에 독일 크리스천의 재건에 동참할 권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본 웨퍼는 그 독일에서 주님이 자신을 부르신 그 목적대로 히틀러를 향하여 준엄한 신앙의 양심을 선포하다가 히틀러가 자살하기 20일 전인 1945년 4월 9일 39살의 나이로 감옥에서 순교당한다.

20세기가 낳은 가장 탁월한 학자로서 자신의 뜻과 명예를 얼마든지 펼칠 수 있었던 본 웨퍼가 이런 삶을 살았던 이유는 바로 그가 그리스도인이었

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이라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을 말한다. 아무리 내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는다면 그는 결코 그리스도인일 수 없다.

신약의 초대교회 시절에 비로소 안 다음에 살던 성도들을 향하여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게 된 것은 저들의 모습 속에 무엇인가 다른 삶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다.

저들이 믿는다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남들이 아무리 상대방을 속이고 실속을 챙기는 그 순간에도 결코 남의 것을 취하지 않고, 남을 해하지 않으며 오히려 손해보고, 자기의 것을 나누어 주는 그 이상한 모습 때문에 드디어 세상 사람들은 교회의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게 된 것이다. 즉,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게 될 때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줄 수 있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

이것이 본 웨퍼의 삶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웨퍼는 독일의 격변기에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며 살았던 용기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에 틀림없다.

우리는 종교개혁 496주년을 맞이했다. 1517년 마틴 루터가 중세의 교회를 향하여 외쳤던 95개조 반박문의 핵심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올해도 종교개혁이 단순한 구호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 모습을 위해 순종하며 살아야 할 것이다.



세금무료상담

확실히
줄여드립니다!!

이정운 CPA

- 개인 및 사업체에 맞는 절세
-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서비스 및 고객 데이터베이스 구축
- IRS, FTB, SBOE, EDD 세금문제해결
- 저소득층 세금환불(ETC)
- TIN(개인납세자번호)신청 및 공증
- FAFSA, 소설연금, 해외자산신고 상담
- 정확한 서비스와 저렴한 수수료

Tel (213)387-2004
www.cyleecpa.com

3130 Wilshire Blvd. Ste 405, Los Angeles, CA 90010
Tax season 연장근무!!
(평일 9 am - 8 pm, 토요일 10 am - 5 pm)
(무료주차!! Free Parking!!)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벧전4:10)

양로병원 노인 분들을 위한 찬송가 경연 대회

장애우 사랑교회에서 13년째 양로병원을 봉사 하던 중에 어려운 형편으로 가족들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외로움도 달라고 치매 예방을 위해 찬송가를 암송함으로써 매일 소일거리가 생겨 정신적으로 좋은 결과가 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르신들께 기쁨을 드리기 위한 찬송 경연을 엮니다. 모든 분들을 모시고자 하오니 기도, 봉사, 마음, 시간을 내셔서 따뜻한 사랑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대회 장소와 예매시간

중앙양로병원 Mid Wilshire Health Care Center 606 S. Bonnie Brae St. L.A., CA90057	그랜드 파크 양로병원 Grand Park Convalescent Hospital 2312 W. 8th St. Los Angeles, CA, 90057
1차 찬양대회: 2013년 6월15일 토요일 오전10시	부활절 예배: 2013년3월22일 금요일 오전9시30분
2차 찬양대회: 2013년 12월21일 토요일 오전10시	추수감사절예배: 2013년11월22일 금요일 오전9시30분
	성탄절 예배: 2013년12월20일 금요일 오전9시30분

■■■■ 봉사자들을 구합니다 ■■■■

협찬 남가주 교회협의회, 남가주 한인 목사회, 영애 사랑교회, 믿음의 은사를 전하는 선교교회, 데이비 백 병회사 그룹, 미동원 변호사 그룹, 카주 잉글리시, Lahenco, Inc, 세일러 저동터, 남가주 총회도도단체, Los Angeles Downtown Lions Club

장애우 사랑교회 T. 213-705-0404 F. 213-251-8930 P.O.Box 742017 LA., CA90004

아내의 눈물



손 인 식 목사
베델한인교회

한국에서 군대를 나온 남성들은 훈련소를 마친 후 101 보충대로 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군인들을 전방의 각 부대로 보내는 곳이 이 101 보충대입니다. 최근 베델 식당에서 열린 새가족 환영 만찬 시간에 유독 제 마음에 떠오른 것은 우리 새가족팀이 주최하는 새가족 환영회가 마치 101 보충대의 역할을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새로 베델 가족이 된 교인들을 환영 하면서 그들을 각 셀교회와 팀으로 배치하고, 추천하며 소개해 드리는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새가족환영회는 매번 그야말로 상이 부러지게 차리는 환영 만찬 음식 중에도 정말 압권이라 할 만큼 대단했습니다. “끝이 안 보이게 차리셨네요!”라며 놀라는 어느 새가족 한 분의 멘트도 제 귀에 들렸습니다. 그 많은 음식은 며칠 전부터 우리 새가족팀의 부인들이 장을 보고 메뉴를 정하며 하루 이틀에 걸쳐 직접 교회 부엌에서 조리해서 내놓은 문자 그대로 “hom made” 음식들입니다.

생각해 보니 제가 베델에 부임해서 부터 시작된 새가족 환영회가 23년 동안 줄잡아 120번은 넘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새가족들이 베델로 밀려들었고 그 중에 수많은 분이 새가족 환영

회의 밥을 먹었습니다. 온갖 정성 어린, 그리고 화려하고 다양한 메뉴들이 지난 세월 동안 선보였습니다. 수고와 희생 없이는 될 수가 없는 음식들이며 섬김입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두 달에 한번 꼴로 열리는 새가족 환영회이니 그저 한번 기분 내서 해 본 것이 아니고 진정 주님을 섬기던 ‘마르다’처럼 매번 음식을 차린 것입니다.

그것을 남자인 이 담임목사보다 더 속속들이 알고 있는 것은 물론 여성인 제 아내입니다. 그날 새가족 환영회 시간에 늘 하던 대로 제 아내가 짧은 인사 멘트를 했는데 새가족 만찬을 준비한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을 향하여 “수고하셨다”는 인사 말씀을 하더니 목이 메는 것이었습니다. 목이 메어 눈물이

흐르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지난 세월 얼마나 고생들이 많으셨는지, 얼마나 좋은 분들을 만나 이런 사역들을 할 수 있었는지, (우리가 떠난 다음에도) 찾아오는 새가족들을 계속 섬겨주실 것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등의 멘트를 눈물 가운데 겨우 마치고 자리에 앉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여성으로서 그토록 충성스러운 권사님들과 여집사님들의 희생과 섬김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참석하는 새가족 환영회 자리에서 꼭 하고 싶었던 감사와 사랑의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성전 문 앞에서 마치 독수리 눈처럼 새가족들을 찾아내는 바람에 새로 오시는 분들이 새가족 안내자들을 “무섭다”고 표현할 만큼 멋진 팀웍을 이루어낸 한 분, 한 분들에게 저 역시 존경한다고,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이 강력한 팀웍을 이끌어 가는 최미정 전도사님에게 큰 박수를 쳐 드리고 싶습니다. 이 팀웍을 우리 김한오 목사님에게 가장 큰 인수인계의 선물로 드리는 것 같아서 저 역시 기쁘기 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우리 베델교회는 더 많은 새가족들이 밀려 들어오는 “중흥”의 시절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새가족팀 여러분, 이제부터가 다시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만민이 기도하는 집



엄 영 민 목사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새벽기도를 하다 보면 한 순간 어디선가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경우가 종종 있다. 대체로 새벽 기도 시간이나 그 직후에는 기도소리가 들려도 익숙한 교회 성도들의 기도 소리인데 반해 이 소리는 전혀 알 수 없는 소리이다. 누가 방언을 하더라도 하는 것인가 하고 자세히 귀를 기울여 보면 곧 그것이 베트남어로 하는 기도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교회 근처에 사는 베트남 분들이 와서 기도드리는 소리인 것이다.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베트남 교회도 있지만 새벽기도를 드리는 베트남 분들은 반드시 우리 교회에 나오는 분들은 아니다. 기도초소를 찾다가 개별적으로 혹은 두 세사람이 짝을 지어 기도를 하러 오는 분들이다.

이 분들은 대체로 우리 교회의 새벽기도 시간이 끝나고 대부분의 성도들이 떠나는 시간쯤 기도를 시작한다. 교회 뒷 좌석에 앉아 기도를 드리지만 가끔씩 그 간절함이 깊어지면 강대상

앞까지 나와 두 손을 들고 울음섞인 듯한 간절한 목소리로 기도를 드려온 한다. 그 기도를 나는 전혀 알아들을 수 없다. 그렇지만 그들이 기도하는 목소리를 들으면 왠지 친근하고 그게 무슨 뜻인지 알 것만 같은 느낌이 든다. 더러는 어쩌다 나와 눈이 마주치기라도 하면 서툰 영어로 자신들을 위해 기도해달라는 부탁을 하기도 한다.

재미있는 것은 가끔씩 나도 모르게 내 기도가 깊어지면 그들의 기도소리

도 한껏 고조되는 것을 느끼곤 한다. 마찬가지로 가끔씩 그들의 기도가 한층 고조되는 목소리를 들으면 나의 기도도 더불어 뜨거워진다.

우리 교회는 정말 기도하기 좋은 교회이다. 위로는 동행의 높은 지붕에 스탠드 글래스가 장식되어 경건한 느낌을 주고 바닥에는 카펫트가 깔려져 어느 곳에서도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곳에는 사람들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이끌어 주는 영적인 분위기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영적인 분위기가 틀림없어 있다.

교회는 다 그렇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것은 아니다.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더욱 실감난다. 모조리 교회에서 성도들이 주님을 향해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 더 나아가 이방인들이 드리는 기도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열납되고 모두에게 응답이 풍성하게 부여하기를 기원한다.



클래어몬트 신학대학원 목회학박사과정

Doctor of Ministry (D.Min.)
Practical Theology of Healing, Reconciliation and Transformation in Korean Contexts

클래어몬트 신학대학원은 미국에서 최초로 목회학 박사과정을 만들고 목회학 박사 학위를 수여한 신학대학교입니다. 또한 클래어몬트 실천신학 목회학 박사 과정은 미국 교육부의 대학학력인증기관인 "서부대학기관협의회"(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 Colleges)와 미국과 캐나다의 신학대학교의 공식학력을 인증하는 기구인 "북미신학대학교협의회"(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로부터 여러 가지 심사와 검증을 거쳐서 공식적으로 학력인증을 받은 우수한 프로그램입니다.

미국의 신학대학들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목회학박사 학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대표적인 두 곳의 학력인증 교육기관에서 학력인증을 모두 받은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클래어몬트 신학대학교의 실천신학 목회학 박사 과정은 그 학사과정, 교수진, 그리고 프로그램의 질적인 우수성을 공식적으로 인증 받은 프로그램입니다.

클래어몬트의 실천신학 목회학 박사 과정은 통합적 상황분석을 강조함으로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문화 속에서의 개인에 대한 이해, 또 갈등의 해결책을 제시할 것입니다. 이 학위 과정은 학생들에게 갈등과 치유에 대한 비평적이며 조직적인 이해, 이론과 실천의 접착점에 대한 비평적 고찰, 임상과 신학의 통합된 기술과 능력을 얻도록 도울 것입니다.

| 입학설명회 |

- ▶ 날짜 : 12월 4일 수요일 오전 11시
- ▶ 장소 : Claremont School of Theology
Haddon Conference Room
1325 N College Ave Claremont, CA 91711
- ▶ 문의 : 이효주목사 koreandmin@cst.edu/
973-713-3009

| 입학원서 마감일 |

- ▶ 2014년 1월 입학 : 2013년 9월 1일까지
 - ▶ 2014년 5월 입학 : 2014년 2월 1일까지
- 입학정원이 다 채워지지 않을 경우, 개강이 연기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입학요건 |

- M.Div. 학위 혹은 동등학위 소지자 (동등학위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학교 웹사이트 참고) <http://media.cst.edu/uploads/genericfile/korean-d-min-application-instruction.pdf>
- 각 학위성적(GPA)3.25 이상 선호
- M.Div. 학위나 동등학위 취득후 3년 이상의 full-time 목회경험
- 본 과정은 한인교수가 강의하거나 미국인교수가 한인 교수와 함께 강의하기 때문에 토플성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기타 |

- 올해부터 목회학박사 학점과 이수기간이 변경되었습니다.
 - 학점: 32학점=> 28학점
 - 이수기간 : 5학기(2년 반)=>3학기(1년 반)
- 수업료: 2014년 여름부터 학점당 \$715 -> \$600
- 미국과 한국으로 오가는 모든 여행비용은 학생들이 각자 부담
- 한국어로 논문을 쓸 수 있습니다.
-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는 학과과정을 마친 후 교단에서 수여하는 "목회최고지도자 과정" 증서를 받습니다.
- 아래 웹사이트에서 필요한 자료를 다운로드하고 online 으로 입학원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http://www.cst.edu/admission/apply-now>

For More Information - www.cst.edu

- 이효주 목사 (Associate Director)
koreandmin@cst.edu / Tel. 1-973-713-3009



CLAREMONT SCHOOL OF THEOLOGY



WCC 총회, “정의와 평화로의 순례” 요청하며 폐막

세계교회협의회(WCC) 제10차 부산총회가 8일 폐회예배를 갖고 지난 열흘 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 했다. WCC에 속한 전 세계 345개 교단, 700여 총대들은 총회를 준비한 한국교회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WCC는 이번 총회 메시지를 ‘모두 함께 나아가자’(We intend to move together)로 정하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에게 ‘정의와 평화로의 순례’(Join the Pilgrimage of Justice and Peace)를 요청했다.

WCC는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이번 총회를 통해 경험한 ‘일치’를 모든 이들과 나누길 원한다. 그것은 이 세상의 희망”이라며 “우리는 이 땅의 냉혹한 현실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이들은 “WCC는 한반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비롯해 정의와 평

화를 이 땅에 구현하길 원하는 모든 이들과 연대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 예배에서 인사말을 전한 김삼환 목사(WCC 총회 한국준비위 상임위원장)는 “이 세상의 모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뿐”임을 강조하고, 또한 “북한이 하루 속히 개방되고 인권이 억압되는 현실에서 자유롭게 되길 기도한다”고 전했다.

김 목사는 “한국교회는 대한민국 정부와 박근혜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 통치를 전적으로 지지한다”며 “유엔이 결의한 대북 경제제재 조치는 적절했고 훌륭한 결정이었다”고 말해 묘한 여유를 남기기도 했다. WCC는 앞서 채택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관한 성명서’에서 “우리는 유엔안보장이사회에 대한 결의안에 우려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김진영 기자



WCC 총회 총대들이 모두 일어나 함께 손을 맞잡고 있다. ©WCC 제공

‘WCC 선도하려던’ 교계 지도자들, 충격 넘어 분노

북한 인권 외면한 ‘한반도 평화 성명서’ 비판

세계교회협의회(WCC)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관한 성명서’에서 끝내 북한의 인권 현실을 외면한 것에 대해, 한국 교계 지도자들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그간 온건한 입장에서 WCC의 변화를 기대했던 이들은 충격을 넘어 분노까지 느끼고 있다.

그 대표적 인물인 이종윤 목사(서울교회 원로, 한국기독교학술원 원장)는 이번 WCC 총회 전부터 계속적

으로 이 문제의 공론화를 위해 애써 온 인물이다.

그는 WCC의 성명서가 발표된 뒤 “WCC가 (성명서에서 인권 유린의 주체로) 북한을 지목하지 않았다”며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성명서에) ‘북한의 심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우려’와 특별히 ‘종교의 자유가 회복돼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고 요청했지만 결국 반영되지 않았다”고 착잡한 심정을 토로했다.

이 목사는 WCC가 성명서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우회했다. 북한에서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그런 문제가 많다면서 WCC가 바로 그 약자들 편에서 있다는 식의 간접적인 표현만 썼다”며 “또 (한반도 평화를 위해) 외세가 다 물러가야 한다고 했다”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 문제를 위해 WCC 총회 개최 때부터 참석해 왔다는 이 목사는 “이번 총회 전부터 왜 북한 인권 문

제에 침묵하는지 WCC 본부에 항의도 하고 전화도 하며, 편지도 썼다”면서 “사실 제네바 WCC 본부에서 나를 이번 총회에 특별 초청했다. 하지만 대의원이 아니니 전체 회의에서 발언권을 얻을 수 없었다. 그런 가운데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WCC 내에 좌파 세력이 너무 강했다”고 했다.

그는 “얼마 전 WCC 관계자에게 한국에서 총회를 치르려면, 50년 전 한국교회가 WCC 문제로 분열했던 상처를 치유해 줘야 한다고 했다”며 “그런데 지금 무슨 치유책이 나왔는가. 나는 오히려 (WCC 총회 후) 한국교회가

더 염려된다”고도 했다. 한국교회 보수와 진보 진영의 화해를 촉구하며, 이번 WCC 총회와 관련해 애정어린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김영한 박사(기독교학술원 원장)조차 이번 성명서에 대해 “종교의 자유를 주지 않고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북한을 비판해야 했다. 교회를 설립하지 못하게 하고 (주민들을) 감금하며 처형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했어야 했다”며 “이런 것들을 언급하지 않는 WCC의 정의는 그저 편파적인 정의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김진영 기자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

웨스턴+3가에 있는 웨스턴 빌리지 센터로 이전했습니다

남자 헤어컷 \$8

매주 목요일에는 남자 헤어컷을 \$8에 해드립니다. 미리 예약하시는 분에만함. * 헤어 컬러 화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밤 10시까지 영업 (퇴근후 찾아오세요)

편리한 위치- 넓은 지하 주차장 **웨스턴+3가 코너**

새로운 장소에서 보다 더 편리하게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마이스타일 미용실은 서울 청담동의 최신 한국 유행 트렌드와 베버리힐스의 미국 유행 트렌드가 결합되어 당신에게 꼭 맞는 헤어스타일을 찾아드립니다.

헤어 칼라

\$30 up \$10 up

* 단, 칼라만 하시면 \$30.00

매직 스트레이트

\$100 up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 90020
 영업시간: 월요일부터 토요일 까지 9:00 AM ~ 10:00 PM

Tel: 213-739-1022

“반대자도 기독교 공동체의 일부로 인정”



WCC 올라프 트베이트 총무가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순서대로) 통역을 맡은 금주삼 총무(WCC 전도와선교위원회), 트베이트 총무, 김근상 NCKK 회장, 김영주 NCKK 총무

WCC 올라프 트베이트 총무가 11일 아침 서울 종로 한국기독교교회관에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KK) 김영주 총무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총회의 의미와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 등을 밝혔다.

트베이트 총무는 먼저 총회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협조한 한국교회에 감사하며 이번 총회에 대해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참가한 총회였다. 지금까지 WCC 총회는 세계 기독교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었고, 이번 총회 역시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WCC는 정의와 평화를 위해 일해왔고 그것을 주로 정치적 이슈로 다뤘지만, 이번 총회에선 신앙과 영성의 중요한 부분으로 강조했다”며 “신앙에 기초한 공통의 고백과 헌신을 가능케 한 총회였다”고 평가했다.

트베이트 총무는 이어 “총회 참석자들은 세계 기독교에 있어 한국과 아시아 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며 “세계교회는 한국과 아시아 교회들의 주도권을 인정할 것이고, 또한 그들의 리더십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그는 “이번 총회에서 복음주의 의권과 오순절 교회들이 WCC에 대해 강한 지지를 보냈다. 이것이 한국교회 상황에서도 매우 중요하고 유의미한 일일 것”이라고 말했다.

트베이트 총무는 이번 총회 기간 동안 벌어진 ‘WCC 반대 시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WCC는 다양성 속 일치를 추구한다. 이 일치는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믿음 속에서의 일치”라며 “WCC 반대자들 역시 세계 기독교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공동체

의 일부로 인정한다”고 말했다.

‘조흔제’ 논란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트베이트 총무는 이에 대해 “최근 종교로 인한 폭력 사태들은 기독교가 왜 이웃종교들과 평화롭게 지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며 “근본주의 세력들이 부상하고 있는데, 이들은 종교의 이름으로 분쟁을 합리화하고 있다. 세계 평화를 위해 일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고 답했다.

WCC는 이번 총회에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관한 선언문’을 통해 UN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가 북한의 인권, 특히 생존권 위기를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수용소, 공개처형 등 북한 정권에 의해 자행되는 인권 유린 상황에 대해서는 별다른 비판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트베이트 총무는 “북한의 인권 상황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것”이라며 “이번에 우리가 발표한 성명의 핵심적 목적은 분단으로 인해 고통 당하는 한국인들에 대한 연대와 공감을 표시하고, 서로 함께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었다. 각론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일일이 거론하는 게 목표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북한의 인권 문제는 향후 반드시 한 번은 짚고 거론돼야 할 의제임은 분명하다”면서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 그것에 접근하는 게 더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는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 분명한 것은 평화 없이 분단 문제의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평화는 남북한 모든 사람들의 인권을 증진케 하는 첫번째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진영 기자

뉴욕 목사회 부회장 후보, 김영환 목사-이만호 목사



회장 후보 황동의 목사, 부회장 후보 김영환 목사, 이만호 목사

대뉴욕지구한인목사회 제42회 회장 후보 및 부회장 후보가 확정됐다. 뉴욕목사회는 8일 후보 접수를 마감한데 이어 9일 특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창섭 목사) 모임을 열고 등록된 후보자들에 대한 서류 심사를 갖고 모두 통과시켰다.

회장 후보에는 현 부회장이인 황동의 목사(뉴비전교회)가 단독 입후보했으며, 부회장 후보에는 김영환 목사(효성교회)와 이만호 목사(순복음안디옥교회)가 각각 등록했다.

특별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된 입후보자에 대한 서류 심사를 마친 후 선거일 전날인 2013년 11월 17일 자정까지 입후보 조건을 밝히기 위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포함, 목사회 회원들에게 자신을 알리기 위한 공식 선거 활동을 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

회장 단독 후보인 황동의 목사는 고려대학교(B.S.), 하나님의성회 뉴욕신학교를 거쳐 동부개혁신학교 M.Div.,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 D.Min. 과정을 마쳤다.

부회장 후보 김영환 목사는 Bethany Bible College and Theological Seminary(B.A.) 이후 동 대학원에서 M.Div. 등의 과정을 수료했다. 소견으로는 기도하는 목사회, 성령충만한 목사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부회장 후보 이만호 목사는 한세대학교(B.Th.), 한세대학교 목회대학원(Master of Ministry) 등의 과정을 거쳤다. 소견으로는 교역자의 영성 회복과 친목을 통한 목회자 화합을 출마동기로 밝히면서 어려운 목회자 돕기 등의 운영 계획을 밝혔다.

김대원 기자

매치스트라이크 2013 앙코르(Encore) 성료



워싱턴 DC 지역의 대표적 청년 연합 부흥집회인 매치스트라이크에서 청년들이 찬양하고 있다.

올해 13회째를 맞이한 매치스트라이크 청년 부흥 축제가 11월 9일(토) 메릴랜드 엘리콧시티 소재 뱌엘교회(담임 진용태 목사)에서 "앙코르(ENCORE)"라는 주제로 열렸다. 올해 주제는 "청년들이 다시 한 번 복음의 진수로 돌아가자"는 의미에서 선정됐다.

축제는 AMP의 공연을 시작으로 매치스트라이크 스킵팀의 연극, 마이크 맥퀴티(Mike McQuitty) 목사의 설교, 윤종만 목사(메릴랜드교협 회장)의 헌금기도, 매치스트라이크 찬양팀과 피바디 리조이스 오케스트라의 찬양, 합심기도, 유주는 회장(메릴랜드청년연합회)의 광고, 진용태 목사의 축도 순으로 진행됐다.

남침례교(SBC) 북미선교국(NAMB) 스태프로 사역하고 있는 마이크 맥퀴티 목사는 19년 동안 캠퍼스 사역을 해 왔으며, 현재는 타운슨(Towson) 지역에서 캠퍼스 사역을 하고 있다. 이날 맥퀴티 목사는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그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후 마을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장면을 설명하면서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성경 지식에는 해박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은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예수님의 인격적인 만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맥퀴티 목사는 "구원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을 때 받은 것"이라며, "거짓된 복음이 아니라 진정한 복음 앞에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자"고 격려했다.

특별히 올해 축제에는 합합과 랩을 통해 기독교 진리를 젊은이들에게 전하는 3인조 남성 그룹 AMP와 피바디 음대 기독교학생회 '리조이스'의 오케스트라가 함께 해 은혜를 더했다. 또한, 메릴랜드교협과 메릴랜드목사회가 행사를 후원, 지역교회 목회자들이 다수 참석해 청년들을 격려했다.

합심기도 시간에는 매치스트라이크를 위해, 청년들이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번 축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 성령의 역사가 쏟아지도록,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를 위해 각각 기도했다.

한편, 메릴랜드청년연합회 총회가 12월 중에 열릴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유주는 회장(jyoo14@gmail.com)에게 문의하면 된다.

합심기도 시간은 매치스트라이크를 위해, 청년들이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번 축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 성령의 역사가 쏟아지도록,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를 위해 각각 기도했다.

한편, 메릴랜드청년연합회 총회가 12월 중에 열릴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유주는 회장(jyoo14@gmail.com)에게 문의하면 된다.

조요한 기자



LA 지역

<p>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Youth예배 오전 11:00</p> <p>어린이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토요일연합새벽 오전 6:20</p> <p>한천영 담임목사</p> <p>갈릴리선교회 함께웃고 함께우는 공동체</p> <p>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hc.com</p>	<p>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30 3부예배 오후 12:45 금요일기도회 오후 7:00</p> <p>새벽예배 오전 5:30 (말-금) 오전 6:00 (토) 유초등부 오후 12:30 중고등부 오후 12:45</p> <p>강진웅 담임목사</p> <p>갈보리민음교회 백천 세계 비전!</p> <p>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p>
<p>주일 오후 4시 새벽 오전 5:30 (말-토) 저녁 오후 7:30 (화,목,금)</p> <p>엘리아 김 담임목사</p> <p>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이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p> <p>978 S. Hoover St.#203 LA 90006 T. (213) 272-6031</p>	<p>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p> <p>성인 EM예배 오후 2:00 한어청년예배 오후 2:00 찬양예배 오후 3:3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시</p> <p>박현성 담임목사</p> <p>나성열린문교회 생명과 부흥이 풍성한 교회</p> <p>1925 Wilshire Blvd, LA, T. (213) 383-2600 (213) 413-1600 임시예배처:3119W.6th, LA, CA 90020 laopendoor.org</p>
<p>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p> <p>EM예배 오전 11:30 새벽예배 오전 5:30 (말-토)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p> <p>진유철 담임목사</p> <p>나성순복음교회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는 예배공동체</p> <p>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p>	<p>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45</p> <p>영어예배 1부 오전 9:00 2부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저녁 8:00</p> <p>나성한인교회</p> <p>2241 N. Eastern Ave. Los Angeles, CA 90032 T. (323) 221-9531 / F. (323) 221-0345</p>
<p>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0:45</p> <p>대학부 오후 1:00 성경공부 저녁 7:30(목)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6:00(토)</p> <p>김광삼 담임목사</p> <p>나성제일교회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행복찬 교회</p> <p>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p>	<p>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오전 10:30 (수)</p> <p>금요저녁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1부 오전 5:30 2부 오전 6:30 (말-금) 오전 6:30 (토)</p> <p>정우성 담임목사</p> <p>남가주광염교회 말씀과 기도로 비상하는 은혜공동체</p> <p>1153 Valencia st. Los Angeles, CA 90015 T. (213) 598-0191</p>
<p>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후 12:00 성경공부 주일오전 11:00</p> <p>주일학교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 (화-토)</p> <p>김요섭 담임목사</p> <p>남가주리디머교회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p> <p>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213) 215-8523 / scrdm.org</p>	<p>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p> <p>중고등부-주일 오전 11:00 청년부-주일 오후 1:3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00</p> <p>서건오 담임목사</p> <p>새로남교회 말씀과성령으로 주의 뜻을 이루는교회</p> <p>3407 W. 6th St 103 LA, CA 90020 T. (213) 384-0305 / www.gwclia.net</p>
<p>김성광 담임목사</p> <p>주일예배 오후 2:00 주일학교 오후 2:00</p> <p>금요일예배 오후 7:30</p> <p>성재복음선교회 은 성도가 사랑과 말씀으로 구원의 확신에 가지는 교회</p> <p>520 S. La Fayette Park pl. #415 LA, CA T. (213) 327-9200, T. (213) 598-9932</p>	<p>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EM예배 오전 9:30</p> <p>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p> <p>최원형 담임목사</p> <p>세계선교회 하나님의교회,사람들의교회,세상속의교회</p> <p>927 S Menlo Ave. LA, CA90006 T. (213) 388-1927,388-2105</p>
<p>박승부 장로</p> <p>1기,2기,3기,4기 수료생 배움, 현재기 수료생 양성 중 -수기치료의료선교사 양성 -약품이나기름없이 온산으로 각종질병치료하는 의술</p> <p>세계의료선교사육성재단</p> <p>1543 Olympic blvd #505 LA, CA 90015 OC부활교회 (아리랑마켓 뒤) T.(213) 381-7273 / (213) 605-2928</p>	<p>1부예배 오전 09:00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0:00</p> <p>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말-금)</p> <p>조인수 담임목사</p> <p>씨니사이드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예수 안에서 행복찬 공동체</p> <p>118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0691 / F. (213) 389-0694</p>
<p>이경애 목사, 이은우 목사</p> <p>무료 사회복지 상담 및 대형 (정부 배너전 전방) 음식 보조 프로그램(Food Stamp),메디칼, 임신부 메디칼</p> <p>요한 선교회</p> <p>gkal44 Yahoo.com Tel: (213) 703-6863 522 N Hobart Blvd Los Angeles CA 90004</p>	<p>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p> <p>영어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p> <p>김세환 담임목사</p> <p>엘에이연합감리교회 100년역사의 미국 본토에 세워진 최초의 한인교회</p> <p>7400 Osage Ave. Los Angeles, CA 90045 T. (310) 645-3698 / F. (310) 645-3060</p>
<p>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30</p> <p>김혜성 담임목사</p> <p>영생장로교회</p> <p>1829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 732-7356 / C. (818) 993-3574</p>	<p>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p> <p>금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말-금) 오전 6:00 (토)</p> <p>류종길 담임목사</p> <p>임마누엘선교회 초대교회의가정모습,성경학교노년아,만인제사장교회</p> <p>1818 S. Western Ave., #200, Los Angeles, CA 90006 T. (323) 766-9922</p>
<p>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30 새벽예배 오전 6:00 (말-토)</p> <p>3부예배 오후 1:00 수요/금요일예배 오후 7:30</p> <p>신승훈 담임목사</p> <p>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p> <p>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p>	<p>부설 : Naturo pathy Clinic(월-금) 진료문의 213) 505-7067</p> <p>대표 김갑선 목사</p> <p>지구촌 농업선교회</p> <p>3000 W. 6th St. #309 LA CA 90020 T. (213) 505-7067</p>
<p>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p> <p>금요일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30 (토)</p> <p>이명수 담임목사</p> <p>청운교회 선교에 흠뻑, 소.친.초. 청소년의 흠뻑,바른교회간의 흠뻑</p> <p>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p>	<p>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p> <p>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p> <p>민중기 담임목사</p> <p>충현선교회 벨리세(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메(Maturing), 왓선디(entroring)</p> <p>5005 Eder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choonghyun.org</p>
<p>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p> <p>금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말-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p> <p>강지원 담임목사</p> <p>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p> <p>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p>	<p>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평일인 예배 오후 2:22</p> <p>EM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오전 5:20(말-금) 오전 6:20(토)</p> <p>김기섭 담임목사</p> <p>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개우고 이혼24개월복합자며,이혼24개월치러하며,선교영광을증명하는교회</p> <p>51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36 T. (323) 930-0011, (323) 935-0011 / www.LASarung.com</p>

워싱턴주 한인장로회 2014년도 신임 회장에 권정 장로

워싱턴주 한인장로회는 지난 10일 켄트 캠프포트 인에서 2013년 감사예배 및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임 회장으로 권정 장로(시애틀형제교회), 신임 이사장으로 김근배 장로(순복음근빛교회)를 만장일치로 각각 선출했다.

이외에도 수석부회장에 장성태 장로(타코마생명교회), 감사에 황동규 장로(형제교회)를 선출했다.

신임회장 권정 장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는 가운데 지역교회, 특히 작은 교회를 섬기고, 지역교회 선교 부흥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할 것"이라며 "한인장로회가 지금껏 해왔던 일들과 더불어 지역 복음화를 위한 선교적 사명도 감당하길 원한다"고 선출 소감을 밝혔다.

이사장 김근배 장로는 "앞으로 서북미 지역 모든 교회의 덕을 세우고, 지역사회에 유익을 더하는 한인장로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선교 지향적 모임으로 이끌어 갈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권정 장로는 북미주한인기독실업인회(CBMC) 총연합회 회장과 고구마전도학교 강사를 역임한 비즈니스 선교 전문가로, 한인장로회 회원들이 일터와 교회에서 선교적 비전과 마인드를 갖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권정 장로

권정 장로는 북미주한인기독실업인회(CBMC) 총연합회 회장과 고구마전도학교 강사를 역임한 비즈니스 선교 전문가로, 한인장로회 회원들이 일터와 교회에서 선교적 비전과 마인드를 갖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김브라이언 기자

교회미션 선교교회

LA 동부 지역

이희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영아예배 오후 1: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성령집회 오후 8: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갯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EM)
3부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박해성 담임목사

남가주헬로쉽교회
순전한 말씀으로 열매맺는 진리의 공동체
375 N. Towne Ave., Pomona, CA 91767
T. (909) 397-5737 / nfcus.com

주일예배 오전 11시
주일학교 오전 11시
성경공부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김성일 담임목사

빅토빌예수마음교회
제자훈련사역과 성령사역이 조화를 이루는 성도공동체
T. (760) 220-3263, (760) 542-9366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예배 오후 12:50
대학청년부예배 오후 12:50

새벽예배 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수요일예배 오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고태형 담임목사

선한목자장로교회
선포하고 가르치는교회 sunhanchurch.com
1816 S. Desire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965-3443 / F. (626) 965-0404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15
3부예배 오전 11:45
EM예배 오전 11:45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박신철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백성현 목사, 백성영 목사
세미나 및 수양관 사용
여러분께 환영

주의사랑 선교 수양관
아버지의 마음과 신부의 영성 교육센터
11373 Oasis Rd. Pinon Hills, CA 92372
T. (714) 932-8993, (760) 868-8583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9:00

이춘준 담임목사

창대교회
173 E. Dumas St., San Bernardino, CA 92408
T. (909) 388-2940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창신년부 오전 11:00
유년/유아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금요일예배 오후 8:00

전길성 담임목사

크로스로드교회
말씀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제자되어 영혼구원과 세계선교 비전을 이루는 생명의 공동체
2600 Grand Avenue, Chino Hills, CA 91709
T. (909) 627-0201 http://go2cross.org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양성필 담임목사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1861 E. Romirer St., La Puente, CA 91744
T. (626) 912-6600

사우스 베이 지역

정상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영아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1부예배(EM) 오전 11:00
2부예배(EM) 오후 1:15
중고등부예배(EM) 오전 11:0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9-11시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73-5106 / F. (310) 973-7429

김영구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후 12:00
성경공부 주일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45

나눔장로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521 Lomita Blvd #202 Torrance, CA 90505
T. (310) 404-6219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0: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서보천 담임목사

돌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51-3153 / doulors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45

1부 9:45 / 2부 11:45
주일학교 주일 오후 11:45
중/고예배 오전 11:45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45

권영국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망글까지 내 증인이되라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20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교회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강신권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신통(通)하고 인통(通)하며 문통(通)하여 만사형통합시다!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 257-8170

이종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코너스톤교회
이말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4부예배 오후 1:15(EM청년)
5부예배 오후 3:00(EM청년)

장애유아예배 오전 10:00
Toddler - Youth 오전 11:30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am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김바울 담임목사

토렌스 조은교회
www.torrancegcc.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 370-5500 / F. (310) 370-2009

파사데나, 라크라센타, 라캐냐다, 글렌데일, 밸리, 벤추라 지역

주일 예배 오전 11:00
주일 성경공부/세교우반 오후 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금)
오전 7:00 (토)

류준영 담임목사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예수님을 붙잡고, 자라는, 건강한 교회!
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T. (323) 254-4012 / gkpc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2:00

EM예배 오전 9:30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이성현 담임목사

드림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뤄 드리는 교회
130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6
T. (626) 793-0880 / F. (626) 793-6412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후 12:00
아동부예배 오전 11:50
학생회예배 오후 12:00

수요중보기도회 오후 7: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최상훈 담임목사

벤추라감리교회
성령님이 역사하여 예수님을 바리새로 하는 교회
4300 Telegraph Rd., Ventura, CA 93003
T. (805) 658-2171 / venturakorea.com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세리투스채움)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세리투스채움)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벨리채움)
목요영성집회 오후 7:45 (다우니 채움)
금요영성집회 오후 7:45 (벨리채움)

최희정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15711 Pioneer Blvd. Norwalk, CA 90650
T. (818) 363-5887 in-christcc.org

EM예배 오전 10:00
스페인어예배 오전 10:00
한국어 오전 10시 (필로우쉽)
오후 12:00 (분당)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30 (토)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파사데나장로교회
새 사람, 새 교회, 새 세상을 열어가는 신앙공동체
58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1
T. (626) 795-6252 / F. (626) 584-6544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Fax. 213) 402-5136

어린이 선교의 새 패러다임 4/14 윈도우 어린이를 세계 선교의 동반자로!!!



이 글로벌 서밋에는 89개국에서 796명의 지도자가 참석했다.

적극적 해외선교활동을 펼치는 대표적 교회인 프라미스교회(담임 김남수 목사)가 최근 제4차 4/14 윈도우 글로벌 서밋을 10월15일부터 18일까지 태국의 수도 방콕 소재 임페리얼 호텔에서 89개국 796명의 교계 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프라미스교회가 이끌고 있는 4/14운동은 4세에서 14세에 있는 해외 선교지 어린이들에게 미리 복음을 전하고 교육해 세속화의 물결로부터 보호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사역이다.

지난 1,2차 글로벌 서밋은 2008년과 2010년에 뉴욕의 프라미스교회에서 열렸으며, 각각 70개국에서 360명, 80개국에서 600명이 참가했으며 3차 글로벌 서밋은 싱가포르에서 2012년에 열린 바 있다.

이번 4차 글로벌 서밋은 "Rooted and Re-released"을 주제로 1천여 명이 참석하는 규모의 대회로 열렸다. 올해는 15세 미만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세계 변혁의 주제로 일으키기 위해서 △말씀에 뿌리를 단단히 내리도록 △하나님께서 청소년들을 통하여 일하실 수 있도록 사역의 현장으로 내보내야(release) 한다는 취지로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4차 글로벌 서밋의 특징은 어린이를 더 이상 엑세서리나 2차적인 도구가 아닌 세계 선교의 파트너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이번 글로벌 서밋에서 가장 자주 언급된 표현은 "어린이를 파트너로"(Children as partners)였다.

그 동안 어린이는 기독교 교육의 대상으로만 여겨져 왔다. 그 바탕에는 어린이는 발달 심리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미숙하다는 고정 관념이 깔려 있었다. 그러나 인격의 가치나 영혼의 기능면에서는 어른들과 차별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었다.

실제로 이번 대회에서 가장 충격과 감동을 주었던 순간 중 하나는 마지막 날 폐회 예배였다.

대회장 마크 맥클렌던(Mark McClendon) 목사가 자신의 10대 청소년 아들과 함께 찬

양을 인도한 후 잠시 아들에게 마이크를 넘겨 주었을 때, 이 아이는 전 세계에서 고통 받는 아이들을 위해 흐느끼며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 자리에 참석한 각국의 지도자들도 여가져서 손을 들고 함께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이 보였다.

이는 형식과 익숙과 매너리즘에 무덤덤해진 중장년들의 마음의 호수에 잔잔한 파문이 이는 순간이었다. 이번 글로벌 서밋은 주님의 지상 대명령(The Great Commission)에서 오래 동안 생략(The Great Omission)되어온 '선교의 파트너'로서의 어린이의 위상을 제 자리로 돌려놓는 중대한 전환점이 되고 있다.

또 이번 대회는 What & Why를 넘어 이제는 How의 시대로 접어들게 한다는 의미가 있다. 지난 20년간 세계 선교를 달구었던 10/40 윈도우 운동으로 인해 2.5%에서 5%로 이 지역의 복음화 비율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95%가 복음의 불모지로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4/14윈도우 운동은 그야말로 교착 상태에 빠진 세계 선교계의 신선한 돌파구였다는 시각이 일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현재 프라미스교회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시행 중인 어린이 선교 프로젝트인 "Power House"를 소개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뜨거운 관심을 보였고, 주어진 시간을 넘겨 가면서까지 많은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이번 글로벌 서밋의 또 하나의 열매는 내년 6월 초에 한국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4/14 윈도우 세미나를 한국에서 열기로 한 것이다. 애초에는 계획이 없었으나 글로벌 서밋이 열리기 한 주 전 방콕 에를레시아 수련회에 참석한 한국의 김항안 목사(한국교회정보보센터 대표)가 김남수 목사로부터 4/14윈도우 운동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감동을 받아 전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됐다. 한국교회정보센터 주관으로 내년 6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열리게 되는 이번 세미나에는 한국 목회자 3천명 내지 5천명 정도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대원 기자

추수감사절 맞이해 아프리카 기아 어린이에 15,000불 전달



안인권 목사(새소망교회, 위)가 정승호 사무국장(KAFHI, 좌)에게 기금을 전달하고 있다.

메릴랜드 소재 새소망교회(담임 안인권 목사) 총여선교회가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정기 선교바자회를 개최해 수익금 전액을 굶주린 아이들의 영혼을 살리는 사역에 기부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11월 3일 국제기아대책 미주한인본부(KAFHI)에 15,000달러를 전달했다.

지난 10월 27일부터 11월 3일까지 두 주간에 걸쳐 진행된 선교바자회는 새소망교회 총여선교회가 연례적으로 주최하여 수익금 전액을 아프리카 기아 어린이 선교를 위해 후원했다. 작년에 이어 다시 국제기아대책기구(KAFHI)를 선정할 것은 선교사를 파송해 굶주린 어린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사랑의 빵을 전하는 사역의 비전이 교회의 선교적 비전과 일치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또한 본부의 선명하고 투명한 기금운영과 각 필드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의 헌신을 신뢰할 수 있다고 전했다.

11월 첫주일 설교에서 안인권 목사는 "6.25 전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겨우 60불 남짓했으며, 본인도 미국이 지원해 준 옥수수 가루로 겨우 끼니를 해결하던 어린 시절을 보냈다"며, 전교회적인 동참을 호소했다. 또한, 안 목사는 "오늘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미국의 후원을 토대로 이루어진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한다"며 "60년 전 한국과 같은 상황에 처한 아프리카의 굶주린 아이들을 돕는 것은 크리스천의 마땅한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안 목사는 "2013년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감사를 굶주린 지구촌 이웃에게 나누는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KAFHI 사무국장인 정승호 목사가 참석했다. 정 목사는 지구촌 기아 현황과 사역보고, 국제선교의 속제를 당부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후원문의: 703-473-4696, shchung@fh.org
주요한 기자

연합장로교회 4백여 시니어들 위한 컨퍼런스 개최

정인수 목사 “목적 세우고 삶을 개척하라”



아름다운 시니어를 위한 컨퍼런스가 뜨거운 열기 가운데 진행됐다.

아틀란타연합장로교회(담임 정인수 목사) 제2회 시니어 컨퍼런스가 지난 9일(토) 오후 3시 개최됐다.

교회 시니어사역위원회(위원장 이인선 장로)가 주최한 이 행사는 아름다운 시니어 문화를 정착시킴으로 4백여 명에 이르는 교회 내 시니어들이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노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참석한 시니어들은 풍성한 만찬을 즐기며 각종 시니어 사역들을 보고 느낄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청년 인크라이스트팀의 찬양으로 시작된 컨퍼런스는 실버대학교전무용팀의 찬무와 주제강의, 엔젤코리마 하프팀의 연주, 시니어음악동호회 ‘에그린’의 연주, 스포츠를 통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태권도 시범, 풋볼전화, 시니어 비전 선언문 낭독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또 한인봉사단, 시니어 월요초소봉사팀, 권사회 흡리스 푸드 사역팀, 엔젤 크로마 하프팀 등에 대한 소개도 진행됐다.

‘새로운 시니어 비전’을 제목으로 강의한 정인수 목사는 “타주를 다녀 보면 애틀랜타

에 대한 관심이 많다. 살기 좋은 곳으로 인식돼 많은 시니어들이 애틀랜타를 찾고 있다. 연합장로교회에만 4백명이 넘는 시니어가 있어 시니어사역위원회가 반드시 필요하다. 교회는 시니어들을 위해 커뮤니티 센터 한 칸에 시니어 라운지를 꾸릴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인수 목사는 “과거에는 시니어를 뒷방을 차지하는 늙은이라 생각했지만 세상이 바뀌었다. 놀라운 제2의 인생을 시작할 때다. 지미 카터는 대통령 재임 시보다 지금이 더 행복하다고 고백한다. 목적을 세우고 스스로의 힘으로 삶을 개척해 나가는 당당한 실버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인수 목사는 또 “성경은 나이가 드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이야기 하지 않는다. 시니어가 되면 육신은 쇠퇴하지만 삶을 통틀어서 바라볼 수 있는 지혜는 정점에 이르게 된다. 적극적으로 모이고 선교하고 사역하며 스스로 행복의 기회를 찾아가라. 교회가 이를 적극적으로 도와 나가겠다”고 독려했다.

김앤더슨 기자

추수감사절 앞둔 한인교회들, 어떤 모습?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많은 한인교회들이 행사를 기획, 준비하고 있다.

지난 일년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고, 이웃들과 사랑을 나누는 추수감사절을 앞둔 애틀랜타 한인교회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감사의 시간을 준비하고 있다.

먼저, 대표적인 행사로 찬양축제를 꼽을 수 있다. 실로암한인교회는 오는 10일 가족과 셀, 전도회 등을 대상으로 감사찬양축제를 개최하며 아틀란타연합장로교회(담임 정인수 목사)는 17일 추수감사찬양 축제를, 24일 세례 및 입교식을 갖는다.

베다니장로교회(담임 최병호 목사)와 슈가로프한인교회(담임 최봉수 목사) 역시 24일 목장찬양대회를 개최해 축제의 장을 마련한다.

이와 더불어 슈가로프한인교회는 추수감사절까지 예배당 복도에 ‘감사나무’를 설치, 감사제목을 한 곳에 모으고 있으며 ‘합한그릇 나눔 운동’을 펼쳐 사랑을 전한다는 계획이다.

감사의 마음을 이웃에 전하는 교회들도 있

다. 아틀란타한인교회(담임 김정호 목사)는 추수감사주일 성찬식을 거행하며 이날 드러진 헌물을 어려움 이웃에게 전달한다. 성약장로교회(담임 황일하 목사)는 성도들로부터 쌀 한 포석을 기증받아 한인노인회에 전달한다. 성약장로교회는 또 추수감사절 헌금 일부를 한인회관 건립을 위해 기증한다는 계획이다.

중앙장로교회(담임 한병철 목사)는 노숙자 선교단체인 미션야가페(대표 제임스 송)가 호세아피드더형그리제단과 함께 펼치는 추수감사절 이웃사랑에 동참한다. 이 행사는 매년 절기마다 1만여 명의 노숙자들에게 다채로운 공연과 식사, 이발, 미용, 의료상담 등을 제공한다.

이 밖에도 제일장로교회(담임 서삼정 목사)는 추수감사연예예배를 드리고 가을운동을 개최하며 새생명교회(담임 유영익 목사)는 16~17일 선교축제를, 18~23일 추수감사절 특별새벽기도회를 갖는다. 김앤더슨 기자

GSM선교회 2013년 선교의 밤

전 세계 선교사들의 충실한 동역자 GSM 선한목자선교회(대표 황선규 선교사 Good Shepherd Mission. 이하 GSM)가 오는 12월 7일(토) 오후 6시, 시애틀 공항 인근 힐튼호텔 컨퍼런스 센터에서 ‘2013 GSM 선교의 밤’을 개최한다.

1대 1 동역선교로 선교지와 후원자를 연결하는 GSM 선한목자선교회는 100달러가 꼭 필요한 선교지와 후원자를 연결시켜 주는 초교과 선교단체로 2002년 8명의 후원자가 6명의 선교사를 섬기는 것을 시작으로 그동안 괄목할 만한 진보를 드러냈다. 현재 GSM을 통해 전 세계 63개국에서 508명의 선교사와 570명의 후원자가 동역선교를 펼치고 있다.

GSM은 후원의 밤을 통해 2021년까지 GSM 3000(선교사 1000명 후원자 2000명)을 목표로 선교의 확장을 이룰 계획이며, 선교

일선에서 사역하는 세계 각국의 선교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후원할 계획이다.

황선규 목사는 “지나해, 복음전파를 위한 후원자들의 협력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면서 “GSM은 올해도 선교를 위한 연합전선을 구축하고,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어,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구주이심을 증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또 황 목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GSM은 이제 100불 선교와 더불어, 전 세계 선교사들이 긴밀하게 교류하고 선교를 위해 전략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선교 단체가 될 것”이라며 “올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선교사들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브라이언 기자

O.C./앨버틴 지역

이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1부예배(EM) 오전 9:45
2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EM) 오후 1:30
3부예배 오후 12: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가나안장로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는 교회
17200 Clark Ave., Bellflower, CA 90706
T.(562) 866-0980/5027 / canaanchurch.org

1부예배 오전 7:20 금요찬양 오후 7:30 **김영길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00 정애인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영아장년부 오전 9:00/11:00
한아태평양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매일 5:30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 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1:00 **민경엽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나침반 한국학교 주일 오전 9:15
영 유아부 오전 11:00 EM, 대학부 오후 1:30
유 초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토 6:30

나침반교회
모이는교회 흠여지는교회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TEL: 562-691-0691, FAX: 562-691-0698

손병렬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30 4부예배 오전 1:00

남가주동신교회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시는 교회
2505 Yorba Linda Bl., Fullerton, CA 92831
T. (714) 680-9556 / F. (714) 680-6418

1부 예배 오전 8:00 매일새벽예배 오전 5:30 **박용덕 담임목사**
2부 예배 오전 11:30 Youth 예배 오전 10:30
수요예배 오후 8:00 EM예배 오후 2:30

남가주빛내리교회
God First 거룩한 MVP 공동체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 (714) 401-9874 / starkoreanchurch.org

1부 주일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6:00 분당 **허귀암 담임목사**
2부 주일 영아예배 오전 10:00 수요기도 재 8:00 분당
3부 주일예배 오후 2:30 금요공부 재 8:00 분당

노르워크 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로 세우는 교회
13000 San Antonio Dr., Norwalk, CA 90650
Tel: 562-902-4959, Cell: 714-308-7038
E-mail: usa8291@gmail.com

김민재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45 수요예배 오후 7:00
EM/영아예배 오후 12:45 새벽예배 오전 5:30 (화-토)
금요강제예배 오후 7:30

예진교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친구' 공동체
955 W Imperial Hwy Brea, CA 92821 ECCU Auditorium
(Worship Center) T. (714) 788-3677
18639 Yorba Linda Bl. Yorba Linda, CA 92886 (교외 사무실)

1부예배 오전 8:45 금요 Alpha 오후 7:30 **이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오전 6:00 (토)
EM예배 오전 9:30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1655 West Broadway St., Anaheim, CA 92802
T. (714) 999-9900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30 4부예배 오후 1:00 **손인식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3부예배 오전 11:30

베델한인교회
우리가 그리스도이다. 내가 그리스도이다.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오후 12시 30분 성경공부 (화) 오후 8시 30분 **방익수 담임목사**
중, 고등부 오후 8시 주일학교 오전 11:00
청년부 오후 3시 한국교회 (토) 오전 10

사랑의방주교회
믿음을 믿고 믿음대로 살고 믿음으로 장려하여
공동체를 살리는 교회
13955 Yale Ave, Irvine, CA 92620
T. (949) 654-0191

신원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주일학교 오전 11:00 (토) 오전 6:00

삼성장로교회
주님 주신 축복을 누리는 성도의 삶, 선교와 구제의 삶으로 섬김
501 S. Idaho St., La Habra, CA 90631
T. (562) 690-9800 / F. (562) 690-8044

1부예배 오전 7:30 (분당) EM예배 오전 10:00 (FC제출)
2부예배 오전 10:00 (분당) 오후 12:30 (분당)
3부예배 오전 12:30 (FC제출)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5:45 (월-금) / 6:00 (토)

세리토스장로교회
11841 E. 178th St., Artesia, CA 90701 (분당)
T. 562-677-7777, F. 562-677-7778 / ilovepcp.org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한중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토)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30 열린예배 (수) 오후 7:30
4부예배 오후 1:30 성령강림 (매월 둘째 금) 오후 7:30

앨버틴침례교회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 857-9425 / F. (949) 857-9242

최상준 담임목사 주일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6:00
중고등부 오전 11:00
대학청년부 오후 1:30

앨버틴한민음교회
믿음으로 하나되는 교회
18182 Culver Dr., Irvine, CA 92612
T. (949) 769-9628

김삼도 목사 각주일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10:00

앨버틴 할렐루야교회
15520 Rockfield Blvd., #F Irvine, CA 92618
T. (949) 514-4346 F. (949) 305-3951

주일예배: 1부 오전 6:00 매일 오전 6:00(화-금) **지 사론 담임목사**
오후 7:30 오후 7:30
(매월 S,D,F, Power minister)

열방사랑선교센터
말씀과 기도와 성령충만으로 굳건한 영혼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살아있는 사랑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을 알고 인도하시는 선교센터
9850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T. (714) 488-8291, (714) 644-1697

주일예배 오후 1:30 목요예배 오후 7:30 **우대권 담임목사**
주일학교 오후 1:30

영광빛복음교회
1200 W. Alvarez Ave., #A Orange, CA 92868
T. (213) 291-5901 / (714) 833-2568

주일 1부예배 오전 8:15 유년부 초등부예배 오전 11:30 **엄영민 담임목사**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영아중고등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한아태평양예배 오전 10:30
영아주일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토 주일 오전 6:00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열린교회, 주는교회, 키우는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891-2029, 898-1068 F. 714-373-3097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월일 오전 05:30 **한기홍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3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4부예배 오후 2:00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신구받는 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3부찬양 오전 11:1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수요예배 오후 7:30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삼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oc.org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7:30 **목회 담당 앤드류 김 목사**
주일무상예배 오후 2:30 목요 성경학교 오후 7:30
월요 선교학교 오후 7:30 금요침례예배 오후 8:00
화요 중보예배 오후 7:30 토요일 EM예배 오후 7:30

작은자 교회
3세대가 함께 성령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 교회
1681 W Broadway Anaheim, CA 92802
Tel: 714-635-6402, Cell: 714-600-7700 www.ubmchurch.com

결혼교실, 시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김철민 장로**
www.GodFamily.com
www.CMF.org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Fax. 213) 402-5136

“강을 건너 세계로”, 사랑으로 세상을
치유하고 치유하는 섬김의 사람들이 되자
www.samcare.org **박세록 대표**

SAM CARE INTERNATIONAL
1309W. Valencia Dr., Unit #A, Fullerton, CA 92833
T. (213) 447-8169 / F. (213) 381-1506

엘에이 정식허가 고급하숙
임주자화제\$ 책임보험 5성급호텔의 시설
아침, 저녁 제공 케미 tv 초고속인터넷, 냉장고, 세탁장, 교통편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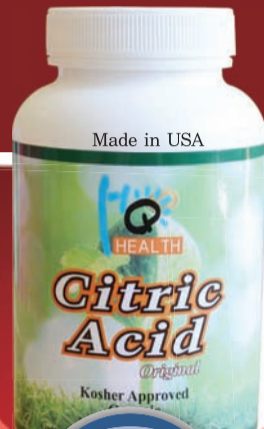
1호점: 8가 + Catalina, 정식허가
2호점: 5성급호텔의 시설 (올림픽+원저)
3호점: 최고급 5성급호텔 시설 (3가+옥스퍼드)

T. 213.327.4710

31년 전통의 HQ구연산 명가 Since 1982

연말연시 감사대세일

위산과다 개선과 위산역류에 좋은 알파 구연산 \$50 ea + tax



각종 질병, 질환에 이미 검증된 오리지널 구연산 \$30 ea + tax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고객 감사 특별상품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구연산 \$100 구입시 **HQ미네랄 소금 1파운드(시판가 \$40) 선물증정**
구연산 \$200 구입시 **HQ미네랄 소금 3파운드(시판가 \$120) 선물증정**
Sea of Cortez 소금은 중금속이 전혀 검출되지 않는 세계에서 유일한 소금이며 천연 미네랄 함량이 전체 무게의 17% 이상 함유되어 있어서 암염보다 10배 이상, 기타 소금보다 5-20배이상 함유된 세계 최고의 무공해 천연 바다 염전 소금입니다.

HQ구연산은 시중에는 없으므로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타사 100% 구연산 캡슐제품은 인체 장기를 심각하게 손상시키므로 FDA 위법 제조로서 고발 대상입니다

당뇨, 고혈압, 변비에 효과가 너무 좋아 더욱 널리 소문난

HQ구연산

국민 건강 식품입니다. 가장 저렴하면서도 가장 탁월한 효능의 구연산!

알파2병 + 오리지널6병 = 8병 or 오리지널 8병

프로모션 A

\$280 \$100 No tax

알파3병 + 오리지널4병 = 7병

프로모션 B

\$270 \$100 No tax

알파5병 + 오리지널1병 = 6병

프로모션 C

\$280 \$100 No tax



한 병은 2-3개월분 / 7병은 1년 6개월분

Kosher Approved Organic/ 8온스(226그램) / 성분: 구연산 100%

HQ구연산은 매실의 80배, 레몬의 200배 농도의 100% 유기농 천연 알칼리 발효식품
HQ 구연산 효과는 확실합니다!
자신있게 권합니다!

자도자도 피곤, 만성피로는 만병의 근원
당뇨 / 고혈압 / 만성피로
100% 환불 보장

노벨상을 3회씩이나 수상한 경이로운 식품

- **바르다넨 박사** (핀란드 1945)
구연산이 "구연산 사이클"의 열쇠가 되는 <오기자로 초산>이 되며 인체의 피로를 제거해 준다.
- **크레브스 박사** (영국 1953)
구연산이 인체 내 피로물질인 젖산을 빨리 분해하고 축적을 막아 피로회복과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어 피로회복과 노화를 방지한다는 구연산 크레브스 사이클 이론으로 노벨 생리 의학상을 받았다.
- **브르크 박사, 린넨 박사** (미국, 서독 1964 공동수상)
구연산은 체내에서 모든 영양물질을 완전 소화 흡수하여 인체내의 자연치유력을 최대로 하여 준다.

노벨상 홈페이지(www.nobelprize.org)를 방문해 검색란에서 Citric Acid를 검색해 보시면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연산은 약이 아니고 식품이면서 인체에 다음과 같은 도움을 준다.

- ◇ 구연산을 섭취하면 크레브스사이클의 출발물질이 되어 신진대사가 원활하여짐과 동시에 인체 피로물질을 신속히 배출하고 혈액을 맑게 하여 순환을 도와 2시간 내에 피로한 기색이 사라지게 한다.
- ◇ 구연산은 입맛을 당기게 할 뿐 아니라 식품에 붙은 세균을 살균시켜 소화불량, 위장병을 없애주며 장내의 활동이 원활해지고 장벽을 깨끗이 청소해줌으로 변비를 없애준다.
- ◇ 구연산 속의 변환효소는 혈관의 수축작용에 관계하여 혈압을 모두 낮추주는데 획기적이다.
- ◇ 구연산은 체내 세포 내의 혈액을 산성화시키고 근육을 굳게 하는 독극물인 젖산(유산)과 초성포도산(필핀산)을 태워 없애주면서 당을 조절하여 당뇨병을 호전시킨다.
- ◇ 구연산은 간장에 해로운 중성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고 독소를 분해시켜 간장을 보호하며 간 기능의 부담을 없애준다. 또한 지방간이나 고콜레스테롤에서 해방되도록 해 준다.
- ◇ 구연산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술독과 담배로 인한 일산화탄소를 분해시켜 부부생활이 즐거워진다.
- ◇ 구연산은 정혈과 살균작용이 뛰어나므로 나쁜 피를 맑게 정화시켜 체외로 배출하는 역할을 한다.
- ◇ 구연산은 피부와 혈액순환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알러지와 가려움증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 ◇ 구연산은 발암물질인 과산화지질을 억제하고 세포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 기미의 원인인 멜라닌 색소를 배출시켜 버린다.
- ◇ 구연산은 젖산을 분해시켜 근육을 유연하게 할 뿐 아니라 통증을 없애는 부신호르몬을 분비시켜 요통, 어깨결림, 오십견을 없애준다. 또한 심한 운동으로 인한 인대가 늘어나거나 허리 통증을 없애준다.
- ◇ 구연산은 세포가 노화되어 동맥경화증, 고혈압, 간장병, 류머티즘 등과 같은 성인병의 유발과 노화의 원인인 유산을 분해시켜 피로를 없애주며, 산성화 된 인체를 알칼리성으로 개선하여 준다.
- ◇ 혈액을 알칼리성으로 유지하는, 즉 혈액을 맑게 하는 작용이 있으므로 자연히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주므로 신체의 모든 기능을 정상적으로 활동하게 한다.
- ◇ 만성신장병으로 신장의 기능이 저하, 부종, 고혈압, 전해질이상, 빈혈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그 정도가 심해 요독증에 이를 경우 신장의 기능을 최대로 증진시켜 노폐물이 쌓이지 않도록 도와준다.
- ◇ 좌골신경통, 요통 등의 통증을 완화해 주는데, 이는 알칼리로 체질개선이 되기 때문이며, 맑은 혈액으로 혈액순환을 좋게 하여 자연 치유력이 최대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 ◇ 숙취에 효과적이며 간기능을 강화시킨다. 또한 산성혈액을 정화하여 항체체질로 바꾸는 작용을 한다.

구연산복용체험담

구연산 보급 30년에 각종 체험사례를 모았지만 너무 많아 이곳에 다 적지 못합니다. 구연산을 매일 2-3회 평생 드시면 암, 치매 등 예방하고 병원, 약값이 절약됩니다.

- ★ 늘 피곤하던 몸이 가벼워지면서 삶의 활력이 넘쳐 좋았다.
- ★ 간질환을 앓고 있다가 구연산 덕분에 완전히 회복되었다.
- ★ 당뇨가 심했는데 복용 3일 후 똑똑 떨어져 당약을 조절함.
- ★ 혈압 200이 넘음. 복용 후 120정도. 이제는 혈압약 안먹음.
- ★ 누나의 소개로... 지금은 보청기를 끼지 않아도 잘 들린다.
- ★ 신장염으로 온몸이 통통 부어 있었는데 구연산이 낫게했다.
- ★ 여드름에 구연산 마사지를 해주니 맥 뜻 추는 것을 알았다.
- ★ 손, 발바닥 무좀을 구연산에 담갔더니 점점 회복이 되었다.
- ★ 방광에 대한 자각증상이 있었는데 장복 후 사라져 버렸다.
- ★ 대상포진으로 가려워 죽을 지경이었는데 먹고 바로니 다음.
- ★ 비염,코를 및 피부 알러지가 완전히 가셔서 계속 복용중임.
- ★ 7년간 피부암이었는데 3주 동안 먹는 것만으로도 치료됨.
- ★ 아토피를 앓았는데 구연산 물을 먹고 바르면서 나아졌다.
- ★ 온몸에 진물을 동반한 두드러기와 가려움증이 사라졌다.
- ★ 나는 당뇨와 17가지 합병증으로 자살을 3번 시도했다. 그러나 구연산 복용 후 2주 만에 완전 정상. 후에 목사 됨.
- ★ 린스처럼 사용했더니 탈모가 중지되고 가려움증이 없어졌다.
- ★ 요리할 때 식초 대신에 사용하니 물기가 없어서 좋았다.
- ★ 당뇨로 잃은 왼쪽 눈, 두 달 만에 시력을 완전히 되찾았다.
- ★ 외출 시에 벌레물린 곳, 몸의 상처를 구연산으로 해결했다.
- ★ 가정상비약처럼 두고 항상 구연산부터 찾는 습관이 생겼다.
- ★ 전 농림부장관 30년 다른 약은 일체 끊고 구연산만 복용. 피검사 후 혈액이 20대 같은. 얼굴에 검버섯, 기미 사라짐. 79세인데 장기 복용하니 두뇌가 청년시절처럼 되돌아 옴
- ★ 파킨슨병으로 고생하다가 구연산 두 달 먹고 테니스도 친다.
- ★ 통갈비, 잔갈비를 구연산에 재니 핏물이 빠지고 맛도 좋음.
- ★ 나물을 무칠 때 식초 대신 사용하면 훨씬 맛이 있고 좋음.
- ★ 밥을 할 때나 국을 끓일 때 구연산을 첨가하면 맛이 좋음.
- ★ 공부하는 아이에게 줬더니 졸지도 않고 집중이 훨씬 잘됨.
- ★ 운전할 때 구연산 물을 마시면 졸리지도 않고 피곤치 않음.
- ★ 눈이 침침할 때 구연산을 찍어 바르니 눈이 점점 밝아졌음.
- ★ 허가 심하게 갈라져 약을 먹어도 안되는데 구연산이 해결함
- ★ 위장병으로 속이 무척 쓰렸는데 구연산을 복용하고 나아짐.
- ★ 50년된 만성변비가 구연산 3일 복용 후 정상 변을 보게 됨.
- ★ 허리통증, 어깨결림이 구연산 10일 복용 후 완전히 사라짐.
- ★ 오십견으로 고통이 심했는데 1주일 후 통증이 거의 없어짐.
- ★ 구연산 복용 45일 후 42인치 허리가 36인치로 줄어들었음.
- ★ 만성 아토피와 간암이 구연산 1년 복용 후 완전히 사라졌음.
- ★ 구연산 복용 후에 피부가 너무 좋아지고 얼굴색이 젊어졌음.
- ★ 양손가락이 완전히 오그라들었는데 6개월 후 완전히 퍼졌음.
- ★ 다리가 저리고 걸을 수가 없었는데 보름 후 증상이 사라짐.
- ★ 유방암이 구연산만 장기 복용 후 완전히 사라짐. 목사 사모.
- ★ 10년간 사타구니의 피부암으로 고생하다가 점차 회복되어감.
- ★ 쌀이나 야채나 과일을 씻을 때 구연산으로 헹구면 농약 끝.
- ★ 만성피로와 간장질환을 구연산을 먹고 지방간도 낫고 회복.
- ★ 30년된 부정맥이 구연산 복용 후 3일만에 정상맥박으로 됨.
- ★ 눈수술 후 안압이 잡히질 않았는데 45일만에 정상이 되었다.

이부영 박사는 왜?

의사들의 검진결과에 대한 처방전을 구연산으로 내려도 괜찮을 것이라고 하였을까?

이렇게 만병 통치에 가까운 구연산을 왜 의사나 약사들이 권하지 않고 있었을까? 의과대학이나 약학대학에서 구연산을 가르치지 않고 있으니 알 리가 없고 안다고 해도 값싼 구연산으로 병을 고쳐라고 처방해 준다면 돈벌이도 안되어 병원 간판을 다 뜯어내려 할 판국이니 누가 그 같은 짓을 한단 말인가. 때로는 내 자신도 이런 신비의 효능의 구연산을 혼자만 알고 건강을 지방하면 될 터인데 무엇 때문에 의학계의 눈총을 받아야 욕을 먹는 걸까 생각해 본다. 건강은 행복의 원천이니 누구나 건강을 스스로 지켜야 한다. 그런 면에서 구연산은 실질적인 건강의 파수꾼이라 할 만하다. 나는 구연산을 복용한 지 이제 막 20년째 들어서고 있다. 아마도 우리나라에서는 구연산의 최장기 복용 기록 보유자가 될 것도 같고 구연산의 신비성에 대하여 나만큼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드물 것 같다. 그러나 애독자들에게만은 건강을 선사해 드리지 않을 수 없어 이 글을 써 보낸다.

이부영박사 현, 서울대학교 의대 명예교수, 대한의학회에서 주는 분수의학상을 비롯하여 국내외에서 많은 상을 받음 1966년에 스위스 취리히 용연연구소 수료 의학파 분석가 자격 취득 *** 위 이부영박사 내용은 인터넷에서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공개된 정보입니다.



HQ Health, Inc. / HQ 산삼 L. A. 본 점 (213)365-2100 세리토스점 (562)760-2359
833 S. Western Ave. #1 Los Angeles, CA 90005
월-금: 10am-7pm, 토:10am-5pm

케네스 배 선교사 북한 억류 1년 가족들 애대위

어머니 배명희 씨 시애틀 타임즈에 기고문 내고 관심 요청



최근 케네스 배 송환 기도 모임에서 아들의 송환을 위해 기도하는 아버지 배성서(70)씨와 어머니 배명희(67)씨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45·한국명 배준호) 선교사의 어머니인 배명희 씨는 아들의 구금 1년을 맞아 지난 4일 시애틀 타임즈에 기고문을 내고 “아들을 잊지 말아 달라”며 아들의 석방을 위한 미국인들의 관심을 요청했다.

배 씨의 기고문에는 배 선교사가 북한에 억류된 1년 동안 가족들이 겪은

고통과 배 선교사의 석방에 대한 간절한 기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배 씨는 기고문에서 배 선교사는 가장 오랫동안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이며, 노동교화소에 보내진 첫번째 미국인이라며 미국인들이 배 선교사 석방 운동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배 씨는 또 배 선교사가 노동교화소에 수감된 이후 3개월 만에 체중

이 50파운드 이상 줄고 건강도 크게 악화됐음을 걱정했다.

지난해 11월 3일 배 선교사는 여행 인솔자 자격으로 중국 국경 인근에 있는 나선경제특구를 방문하던 중, 중국에서 선교사로 활동하면서 북한 붕괴 음모를 꾸몄다는 혐의로 북한에 붙잡혔다.

그는 이후 15년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고, 건강이 크게 악화돼 지난 8월부터는 평양진선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에는 배 씨가 아들 배 선교사를 만나기 위해 평양을 방문하는 등 배 선교사의 석방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기울여지고 있지만, 배 선교사의 송환은 쉽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가족들은 기고문에서 change.org와 freekennow.com 웹사이트를 통해 배 선교사의 사면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배 선교사가 한 주 동안 자신에게 보내진 150여 통의 편지를 읽으며 힘을 얻고 있다며 지속적인 관심을 호소했다.

김브라이언 기자

동성애자 고등학생

학교에서 레위기 짓는 퍼포먼스

텍사스의 한 고등학생이 자신이 동성애자라고 커밍아웃한 후 친구들로부터 왕따를 당하자 그에 격분해 교내에서 성경을 찢는 퍼포먼스를 벌였다가 정학을 받았다. 그는 친구들이 자신을 왕따하는 이유가 성경이 동성애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해 이런 퍼포먼스를 벌였지만 정학을 받았고 이에 또 격분해 교육구를 소송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버드빌고등학교에 다니는 올해 18세 아이제이아 스미스 군은 자신을 동성애자라고 불리는 학생들 앞에서 구약성경 중 레위기를 찢었다. 레위기 18장은 근친상간, 수간, 동성애를 금지한 대표적인 장으로 특히 22절은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고 명시하고 있어 레위기는 동성애 금지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성경이다.

스미스 군은 친구들이 “동성애자가 되는 것은 죄다”, “크리스천은 동성애자일 수 없다”, “넌 지옥에 가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가 성경을 찢는 사건이 알려지자 이 학교의 교감은 그를 불러 “무슬림들 앞에서 코란을 찢는다면 그들이 어떤 감정을 느낄 것인가”라고 물은 뒤, 크리스천들 앞에서 성경을 찢는 것도 옳지 않다고 3일 간 정학을 내렸다. 그러나 그는 “나의 행동은 일종의 시위였다”고 항의했다.

미국인본주의협회는 이 사건을 두고 “스미스 군은 수정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대로 행동했다. 문제는 성경을 찢는 것이 아니라 왕따가 발생한 것”이라고 거들었다. 학교 측은 “이것은 성경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학습을 방해하는 행동에 대한 학교 규정상의 처벌”이란 입장을 거듭 밝혔다.

김나래 기자

미국심리학회 소아성애 합법화 문 열어? “실수였다” 주장

정신질환 진단통계 지침서에 소아성애는 질병 아닌 “성적 지향성” 으로 기재



(www.apa.org) 미국심리학회가 소아성애도 질병이 아닌 정상으로 분류해 논란이 일자, 즉각 해명에 나섰다.

미국심리학회(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가 최근 발표한 정신질환 진단통계 지침서(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에서 소아성애(pedophilia, 小兒性愛)를 질병이 아닌 성적 지향성으로 분류해 큰 논란이 일자 급히 진화에 나섰다.

미국심리학회는 “지침서 제작에 실수가 있었다”면서 “소아성애를 성적 지향성으로 분류한 것을 즉각 수정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심리학

회는 “소아성애를 질병으로 분류하는 기준은 변함없다”고 밝힌 후, “소아성애(pedophilia)를 소아성애적 장애(pedophilic disorder)로 바꾸었다”고 덧붙였다.

또 소아성애적 장애를 성도착증이나 이상성욕(paraphilia)으로 규정하며 이를 성적 욕구(sexual interest)로 표기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성적 욕구가 성적 지향성(sexual orientation)으로 오기됐다는 것이다. 미국심리학회는 온라인 버전의 지침

서는 즉각 수정하고 오프라인 인쇄물의 경우는 다음 인쇄부터 수정된 것이 배포될 것이라 했다.

또 미국심리학회는 “성적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을 학대하는 범죄를 근절하는 일을 우리는 강력히 지지한다. 또 이런 소아성애적 장애를 가진 이들을 치료해 또 다른 성적 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미국심리학회가 여론의 분위기를 떠보기 위해 고

의적으로 실수를 저질렀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어린이를 향해 성욕을 느끼는 소아성애는 중대한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질병으로 인식되어 왔기에 이 지침서의 내용은 미국 사회와 교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그러나 사실 동성애를 반대해 온 교회 입장에서는 동성애 합법화 이후는 소아성애, 근친상간, 수간 합법화가 다음 수순이란 것은 불 보듯 뻔한 예측이었다.

동성애 행위는 역사적으로 범죄시되어 왔으며 이런 행위를 불러 일으키는 동성애적 심리 역시 범죄시되어 왔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동성애를 범죄가 아닌 일종의 성향으로 보게 되면서, 이를 고치려는 정신적 치료도 증가했지만 일각에서는 이를 고칠 수 없는 타고난 성향으로 보기도 했다. 이런 시각은 범죄시 됐던 동성애를 인권의 문제로 부각시키는 데에 성공했다. 결국 타고난 성향은 고칠 수 없다는 전제 하에 “동성애의 인권”이란 개념이 만들어지고 합법화에 이르렀다.

이러한 최근 추세에 더해 소아성애가 성적 지향성으로 규정된다면, 소아성애 역시 동성애처럼 합법화되는 수순에 오르게 된다. 현대 사회에서 소

아성애를 행동으로 옮기는 행위는 미성년 성폭행으로 취급된다. 자기 스스로 성적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절대적 약자인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행위는 폭력적이었던 합의에 의한 것이었던 간에 성폭행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미국심리학회의 이 지침서는 “소아성애 행위는 최악이다”, “소아성애 행위를 유발하는 소아성애 심리는 치료받아야 하며 고칠 수 있다”는 단계를 지나 “소아성애는 타고난 것이며 질병이 아니다”라는 단계까지 들어온 것이었다.

만약 이 지침서대로, 소아성애가 질병은 커녕 자연스러운 현상이 된다면 이것을 고치려는 시도는 인권 침해이며, 이것을 금지하는 행위도 인권 침해가 된다. 나아가 소아성애가 고칠 수 없는, 고쳐서는 안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면, 소아성애자는 자신이 어린이를 향해 성욕을 해소할 인권이 있다는 황당무계한 주장을 할 수 있게 된다. 만약, 소아성애자에게 희생당한 아이의 부모가 이에 대해 항의하면 이 경우에도 “소아성애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혐오범죄”라고 외칠 지도 모를 일이다.

김준형 기자

최첨단 3D 전신 스캔 검사 도입



다나병원의 3D전신 스캔 종합검사는 신체내 투입이나 통증없이 신속, 정확하며 과학적인 방법으로 뇌, 심장, 혈관, 간, 위, 척추 등 전신의 건강상태뿐 아니라 위험요소들을 미리 측정하여 예방도 가능하게 하는, 일찌기 경험하지 못한 전신기능의 검사를 합니다.

검사 결과는 검사즉시 코드화한 3D 입체 칼라 영상을 통해 이상이 있는 부위와 문제를 수치와 영상으로 보여주며, 이에따른 **최적의 건강관리와 최상의 비화학적 치료**를 안내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치료 후의 효과도 재검사를 통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전자 생약치료 프로그램

(gene nutrition herbal therapy)

노화, 콜레스테롤, 혈관, 항산화,비만, 당뇨병, 고혈압, 치매, 중풍, 관절염, 파킨슨, 유방암 전립선암, 직장암, 식도암, 난소암등에 관련된 유전자외에 200여개의 유전자를 분석하여 질병위험과 전반적인 건강상태에 대해 상담을 하고, **BAM(bio active molecule;생리활성물질)으로 치료**를 합니다.

특별무술수기법에 의한 완고한 통증(요통,오십견, 무릎관절통, 좌골신경통등)의 치료도 하고있습니다.





- ✓ 10분 미만의 초스피드 검사
- ✓ 즉석에서 결과 확인과 상담
- ✓ 최상의 치료관리법 안내
- ✓ 초 저렴 검사 및 상담비

다나병원

은 Well-Being과 Aging Care를 목표로 통합의학을 지향합니다.

태바 선교후원회 부설, 다나 병원
621 S.Virgil Ave. #252, Los Angeles,
CA 90005/ T.213.487.0691

*다나병원의 수익금은 전액 선교 후원금으로 사용됩니다.

95세 생일 맞은 빌리 그레함 마지막 설교서 '십자가' 전했다

빌리 그레함(Billy Graham) 목사가 이번 주 그의 95번째 생일을 맞아, 미국인들에게 '십자가(The Cross)'라는 제목의 특별 메시지를 전했다.

이는 TV와 온라인 방송을 통해 전파됐으며, 빌리 그레함 목사가 미국에서 전하는 마지막 메시지가 될 전망이다.

그 동안 드와이트 아이젠하워(Dwight D. Eisenhower), 리처드 닉슨(Richard Nixon)을 포함한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의 영적인 멘토이자 마틴 루터 킹 주니어(Martin Luther King Jr.) 목사의 친구이기도 했던 그는, 지난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희망과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준비했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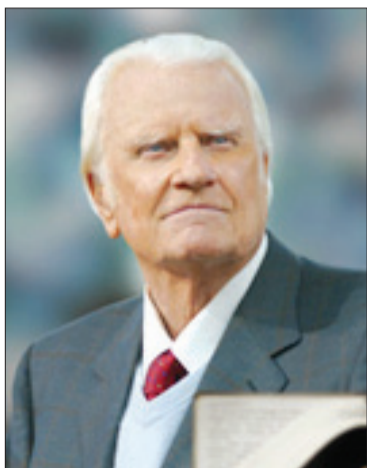
지난 4일 빌리그레함복음주의협회(BGEA) 웹사이트에 올라온 편지에서 그레함 목사는 "최근 나의 조국에 대해 마지막이 될 수 있는 메시지를 준비했다. 이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기도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전심으로 미국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해 일깨울 수 있기를 바란다. 할 수 있는 한 분명하고 단순하게 이를 전하고 싶다. 또한 사람들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고린도후서 7:10)를 일깨우고 싶다"고 했다.

빌리그레함복음주의협회에 따르면, 빌리 그레함 목사의 메시지는 래퍼 레크레 무어(LeCrae Moore), 플라일리프의 리드싱어인 레이시 스톰(Lacey Sturm) 등 유명 음악인들의 신앙 이야기도 들어가 있었다.

협회는 "이들의 간증과 배경음악, 빌리 그레함 목사가 전하는 십자가 구원의 능력에 대한 설교를 통해 은혜를 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레함 목사의 '십자가' 설교는 '빌리 그레함과 함께하는 나의 희망 미국' 사역의 새로운 메시지다. 그는 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미국 전역에 전파한 것이다.



빌리 그레함

빌리 그레함 목사의 <나의 희망> 사역은 2002년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됐으며, 남미·유럽·아프리카·아시아 등지에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레함의 목사의 설교는 11월 7일 일부 케이블 채널을 통해서도 방송됐다. 강혜진 기자

성소수자 직장 내 차별금지법 논란

미국 상원이 직장 내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에 대한 토론을 마치고 이에 대한 표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공화당이 우세한 하원은 상원이 이 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반대할 계획이다.

ENDA(Employment Non-Discrimination Act)로 불리는 이 차별금지법은 직장 내의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고용주가 피고용인의 성적 정체성이나 성적 지향성을 이유로 차별을 가할 수 없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 전문 여론조사 단체(Americans for Workplace Opportunity)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 유권자의 3분의 2는 이 법에 찬성하고 있다. 놀라운 것은 56%에 달하는 공화당원들도 이에 찬성하고 있을 정도로 지지가 높다는 점이다.

이미 미국에서는 성별, 인종, 피부색 등으로 인한 직장 내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ENDA는 이런 차별금지법을 성소수자에게까지 확대하자는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의 여론은 "누군가 성적 정체성으로 인해 취업이나 승진 등에 차별을 받는다면 그것은 부당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법이 제정될 시, 종교 단체나 종교적 성향의 기업, 종교인이 운영하는 영리 기업의 경우는 심각한 타격과 소송 위협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법도 물론 종교단체 면제 조항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동성애를 반대하는 교회는 직원을 고용할 때 동성애자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기독교 출판사의 경우는 이 조항에서 면제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이며 하비로 비처럼 기독교인 고용주가 기독교적 경영 마인드로 운영하는 기업의 경우는 반드시 소송을 감내해야 한다.

현재 법원은 종교자유가 개인을 포함해 영리 단체에도 적용될 수 있는냐를 놓고 설왕설래 하고 있다. 대체로 영리 단체의 종교자유는 허가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 사장은 ENDA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다. 미국가톨릭교회연합회는 "직장 내에서의 차별은 잘못된 것이지만 이 법은 단순한 차별금지를 넘어서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김영신 기자

전세계 박해 교회 위한 기도주간

"핍박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형제들 위해 기도"

11월에는 '박해받는 교회를 위한 세계 기도의 날'(IDOP, International Day of Prayer for the Persecuted Church)이 있다. 전 세계 박해받는 교회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이 전 지구적인 기도 운동은 올해 11월 3일부터 10일까지 8일 간 진행됐다. 올해 세계 기도의 날에는 전세계 150여개국 약 50만 교회들이 동참했다.

한국오픈도어선교회는 "박해받는 기독교 신앙 공동체를 위한 기도운동을 일으키고 그들을 향한 사역에 동참하도록 하는 것이 IDOP 운동의 주된 목적"이라며 "박해받는 성도들이 핍박을 넘어서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고, 핍박을 주도하거나 이를 묵인하는 정부 및 집단을 위해서도 기도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집트, 에리트레아, 인도, 이란,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베트남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대가로 구타, 감금, 심지어 살인 등의 핍박에 직면해 있다. 북한은 경우 박해 행위가 일어나고 있지만 자유 세계의 사람들은 이를 보거나 듣지 못한다.

오픈도어선교회 설립자 브래더 앤드류는 "우리의 영웅들은 우리와 함께 있지 않다"며 "그들은 (핍박을 받아) 감옥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교회 박해에 악용되는 신성모독법 폐지를 요구하는 파키스탄 기독교인 ©한국선교연구원

가스펠포아시아(GFA) 설립자 요한 박사는 "수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매일 실제 핍박을 경험한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핍박받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형제, 자매들과 교회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오픈도어선교회 제리 다익스 트라 대표는 "박해 가운데 있는 이들이 오히려 다른 국가 기독교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며 "이들은 단순히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IDOP측은 올해 특히 힌두 무장단체들에 의한 핍박의 증가로 고난 받고 있는 인도의 기독교인들을 위해

집중 기도할 것을 당부한 바 있었다. 한국오픈도어선교회는 △박해받는 성도들을 위한 기도(요 15:20) △용서를 위한 기도(눅 23:34), △박해자를 위한 기도(마 5:44) 등 세 가지 주제로 기도할 것을 요청했다.

이 외에도 영국오픈도어선교회 등은 이슬람권, 공산권 중에서도 최악의 박해 국가인 시리아, 이라크, 북한 등을 위한 중보기도를 요청했다.

한국오픈도어선교회는 "기도는 모든 기독교인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행동이면서 최고의 능력을 발휘할 것"이라며 한국교회가 기도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이지희 기자

시리아 최대 도시에서 기독교인들 대규모 살상 당해

최근 시리아의 도시 사다드에서 기독교인들의 시체가 약 30구 이상 발견됐다. 이 도시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 의해 공격을 받아 무너진 곳으로, 시리아 대주교는 이번 사건을 지난 2년 반 중에서 가장 심각한 대규모 살상으로 묘사하기도 했다.

지난 10월 21일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마을을 습격한 이후, 약 45명의 기독교인들이 흠스와 다마스쿠스 사이에 있는 작은 마을에서 살해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데스뉴스 통신사는 시리아정교회 총대주교와 유가족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많은 사람들의 무덤을 발견했고, 이후 죽은 친척들과 친구들의 장례를 치렀다고 전했다.

시리아정교회 흠스와 하마 등 수도권 지역의 셀와노스 부르토스 알네메 대주교는 "45명의 무고한 시민들이 아무 이유 없이 순교를 당했다. 다른 시민들 역시 위협을 당하고 테러를 당했다. 30명은 부상을 입었으

며, 10명은 여전히 행방불명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1주일 동안 1,500명의 가족들이 인질과 인간방패로 사로잡혔다. 이들 가운데는 어린아이·노인·젊은이·여성도 포함됐으며, 일부는 약 8km를 맨발로 걸은 사람도 있었다. 약 2,500명의 가족들이 사다드에서 도망쳤다. 이들은 군부의 타락으로 다마스쿠스, 흠스, 페이루자, 제이달, 마스카인, 알라일 등지에서 흩어진 난민들"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시리아 사태 해결을 위한 유엔 주도의 평화회담이 올 연말로 연기됐다. 이는 이른바 '제네바-2' 회담으로 알려져 있다. 시리아 정부는 정부의 퇴진을 요구하는 반군과는 회담에 함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반군 역시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의 사임이 전제되지 않는 한 회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서 향후 양측의 변화에 귀추가 주목된다. 강혜진 기자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효, 이원상, 박기호, 방지자,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편집국장 : 토마스 맥
지사장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0403 / 팩스 : (213) 402-5136
E-mail : chdailya@gmail.com / Payable to order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Sales • Rental • Service • Free Estimate • Supplies

10% 최저 1장

복사기 판매
렌탈 서비스

FMB RENT PROGRAM

- SERVICE는 물론 TONER, DRUM ROLLER 등 모든 PART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정기적으로 SERVICE를 실시합니다.
- 4시간내 A/S를 신속 처리



최신식 디지털
COLOR COPY MACHINE
칼라카피어 렌트전문!



칼라카피

FBM First Business Machines, Inc

전화문의 (800)582-3321 / (562)802-9044

Fax : (562)802-8094

www.fbmcopiers.com

13245 E. Rosecrans Ave., Santa Fe Springs CA 90670

교육 칼럼

Christian Boarding School(기독교숙학교)을 통한 선교 완수



이재영
LA사랑의교회
공립 대안고등학교
디렉터

눈으로 목격하였고 손으로 만졌으며 온몸으로 부대끼며 체험한 세대다. 마치 광야의 이스라엘 민족들과 같이 말이다. 2세대들은 1세대 만큼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체험한 1세대 부모들과 신앙을 강조하는 부모를 보고 자라난 세대였기에 신앙의 끈을 놓지 않고 이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러나 3세대로 넘어오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체험한 역사보다 부모의 신앙의 습관에 따라 형식과 절차에 익숙한 세대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다. 1세대들과 비교하여 더 큰 풍요와 안정적 삶을 살아가지만, 거꾸로 신앙생활에서는 그 어떠한 열정과 헌신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리스도의 핏대를 향하여 달려가기보다 세상을 향해 역주행하고 있는 이 세대의 모습 속에서 우리 1, 2세대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은 무엇일까?

한 세대를 30년으로 잡았을 때 우리 Korean-American은 3세대 즈음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이미 교회와 신앙의 현장에서 떠나가 버린 수많은 우리 자녀들을 뒤로 하더라도 남아 있는 세대와 다가오는 새로운 세대에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고 있을까? 혹은 주일 성수로 만족하고 있는지 않은가? 자녀들에게 우리는 어떠한 영적 기준치를 세워두고 자라가도록 그들에게 요구하고 훈련하고 있는지 물어보지 않을 수 없다.

시대적 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현실적 문제에 대한 진부한 논쟁을 뒤로 하더라도, 이제는 문제를 파악하는 것을 뛰어넘어 누군가가 이 문제에 대한 역사적 책임 의식을 가지고 벌어진 그 틈새를 메우는 일을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바로 이 역사의 틈새를 영적으로 바라보고 그 틈새를 메우기 위해 내 모든 삶을 드릴 때, 그것이 비전이 되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부르신 소명을 확증하게 되는 것이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시대의 틈새를 바라보고 애통하는 자들에게 고상한 신앙 영성이 요구되는 동시에 행동하는 믿음의 영성이 조화되어야 한다. 행동하는 믿음이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을 이루어 낼 수 있는 현장의 사역을 지칭한다고도 할 수 있겠다.

꿈을 주시면 그 꿈을 위해 내가 준비해야 할 일이 있듯이 이 시대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일도 해야 한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학교 사역을 통해 보게 하셨다. 지금은 작

은 대안학교에 불과한 모습이지만 K-12 크리스천 보딩스쿨을 통해 시대의 틈새를 메우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그리고 그 무리가 비록 소수일지라도, 아니 단 한 사람이라도 그 한 사람의 애통한 마음을 보시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을 통해 시대를 바꾸셨고 역사를 새롭게 열어주셨다. 그렇기에 우리는 크리스천 보딩스쿨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영적 리더들을 양성하여 다음 세대에 소망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영적 리더를 양성하는 일은 결코 목회자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다. 할리우드에서부터 워싱턴DC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직업과 현장에서 무너진 단을 수축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리더들을 준비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그 세대의 사람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전(前) 세대가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할 때 주시는 역사이며 동시에 특권이다. 그렇기에 이 땅의 이민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다음 세대의 이러한 영적 리더들을 준비시켜 주는 일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는 흔적도 없이 이 땅에서 사라질 것이다. 이미 3세대가 지나고 있는 중국 교회에서 일본 교회에서 그리고 유럽의 수많은 교회들에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보고 있지 않은가?

우리 Korean-American 이민 교회들이 역사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다음 세대 영적 리더들을 키워낼 수 있는 영적, 지적, 학문적 요람의 산실인 학교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저 의무교육을 제공하는 학교가 아니라 24시간 모든 삶의 영역에서 아이들을 영적 특공대로 훈련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숙(보딩)학교 말이다.

이러한 크리스천 기숙학교를 우리 이민 사회가 만들어 낼 수 있다면 신앙의 능력이 화석화 되어가는 3세대들에게 다시금 1세대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크리스천 보딩 스쿨의 5가지 강조점

1. 영력(신앙)-하나님 중심의 체험적 신앙을 지향한다.
2. 지력(실력)-자기의 영역에서 일가견을 이룰 수 있는 기초 실력을 길러준다.
3. 비전(삶의 목표)-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삶의 방향과 역사의 틈새를 바라보게 하여 World Christian으로 길러야 한다.
4. 심력(안정된 심령 및 습관)-깊은 영

성과 아울러 마음의 그릇과 좋은 습관을 지녀야 평생 승리한다.

5. 체력(육체는 모든 것의 기초)-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으로 체력을 길러준다.

물론 보딩스쿨의 구체적인 방향과 전략은 교육 전문가들과 목회자들이 모여 셀 수 없는 수많은 밤을 새워가며 수정, 보완, 발전되었지만 우리 자녀들이 이러한 5가지의 부분에서 준비되어 대학 생활을 시작할 수 있다면, 적어도 인생의 시간을 목적 없이 방황하여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인생의 마지막 결승점까지 달려갈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확고할 때 아이비리그(Ivy League)도 의미가 있고 박사학위도 의미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될 때, 회사의 CEO도 빛이 나는 것이고 전문 직업의 현장도 영광스러워 지는 것이다. 이러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땅의 어둠과 외진 길들을 당당히 믿음으로 걸어갈 때 미국은 쇠락의 시대에서 다시금 영적 부흥의 시대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해외 선교거점 지역에 인터내셔널 보딩스쿨을 세우다

보딩스쿨이 세워지면 북미 전역에 동일한 교육과 정신을 가진 크리스천 보딩스쿨을 전략지역마다 더 세울 것이다. 북미 지역의 선교는 이들의 손에서 완수될 수 있도록 돕고 이를 바탕으로 해외 선교 거점 지역에도 크리스천 보딩스쿨을 세워나갈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해외 학교들은 미국에서 교육을 받고 자라난 Korean-American 2세 교사들로 채워지게 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순한 교사제를 도입하여 전 세계 보딩스쿨로 미국의 교사들을 파송하려고 한다. 현지에서 조달하기 어려운 교사의 필요도 채울 뿐 아니라, 교사들로 하여금 그 선교의 현장을 직접 보고, 느끼고, 경험하게 하려고 한다. 그래야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 우리 자녀들을 가르칠 때에는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만난 하나님을 나눌 수 있다.

또한, 보딩스쿨 학생들은 여름이면 예외 없이 전 세계 해외 보딩스쿨로 파송하여 현지 사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생생한 현장 학습을 하게 될 것이다.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섬김의 삶을 살게 하고 선교의 눈을 열어주어야 한다. 이들의 삶에 남이 들려준 하나님이나, 내가 만나고 체험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간증과 은혜의 흔적이 남을 수 있도록 훈련하

고 양육할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미국의 최고 엘리트 교육을 받은 교사들이 전 세계 해외 선교 거점에서 가르치고 섬길 수 있는 학교가 운영된다면, 자녀 교육으로 선교지를 떠나야만 하는 수많은 중동권 한인 선교사들과 현지 사역자들의 짐도 함께 나누어질 수 있을 것이다. 현지 국제학교 학비가 너무 비싸 감히 염두를 낼 수 없어, 아니 그러한 선택의 기회조차 없어, 현지 공립학교에 보내지만 자녀들이 이슬람화될 것을 걱정하는 선교사 부모들에게 Korean-American들이 제공하는 국제기숙학교(International Boarding School)는 자녀들의 뿌리 교육뿐 아니라 믿음과 실력을 함께 제공하는 선교 동역의 좋은 모델을 제시해 줄 것이다.

또한, 그 땅의 많은 크리스천 리더들을 배출하여 자기 민족과 나라를 복음화하는 일을 돕게 할 것이다. 한국의 수많은 미션스쿨이 그랬듯이 말이다.

그리고 이런 학교를 통해서 그 땅에서 자라고 교육받고 언어에 능통한 코리안 디아스포라 선교사들을 통해 영적으로 그 민족을 섬기는 귀한 일들도 지속적으로 가능하도록 도울 것이다.

우리는 꿈을 꾸다. 꿈을 잃어버린 세대들에게 꿈을 주기 위해서이다. 이 꿈의 결국은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세계 선교 완수에 있다. 방법과 전략과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사역은 하나다. 예수님의 재임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단 한 명이라도 더 예수님을 전파할 수 있다면,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구할 수 있다면 우리의 노력과 대가에 대한 보상은 충분할 것이다.

우리는 모두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고, 그러기에, 오늘도 최선을 다해 우리에게 맡긴 청소년들을 섬기고 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조금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면 여유롭다. 그것이 믿음이 아닐까? 오늘의 상황과 환경이 전혀 따라주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역사의 틈새에 대한 사명감으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 반드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다음 세대 신앙 계승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책무이며 특권이다.

www.LAsarang.com
학교 주소: 520 S. La Fayette Park Place #453, Los Angeles CA 90057
학교전화: 213-385-5358
한국어 상담 및 문의
이재영 디렉터 714-720-5113

여드름, 성공률 99%

효과 없을시 **100% 환불**

몸속의 원인을 다스리고 피부의 내면과 외면을 동시에 치료합니다.

첫상담 무료!

경산 한의과병원 원장 류재규
KYUNG SAN ACUPUNCTURE CLINIC | 경산 한의과대학 교수

Tel: **213.380.0853**
3030 W. Olympic Blvd., Suite 202-203(삼호관광 물 2층) LA, CA 90006

북새통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신간추천

깊은 만족

이규현 | 두란노 | 384쪽

술한 고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과 깊은 친밀함을 누렸던 다윗. 그의 최고의 신앙고백인 시편 23편을 다룬 이 책은 먹이시고 입히시고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흘러 넘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조언한다. 시편은 묵상할수록 우리 영혼 깊숙히 파고드는 힘이 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필립 G. 라이큰 | P&R | 360쪽

친숙한 13가지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진정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려준다. 저자는 오늘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제대로 알지 못해 벌어지는 수많은 오해와 문제들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성경의 대답을 전하고 있다. 각 장은 성경의 대표적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속성 한 가지씩을 설명한다.



산과 물 그리고 나

양태윤 | 콤란 | 230쪽

이제 성서의 산으로 눈을 돌려 보자. 그 산들에는 성서를 기록한 많은 사람들의 신앙고백이 녹아 있다. 하나님과 인간의 수많은 계약과 배신, 사랑과 희생의 이야기들이 있지만, 저자는 산을 오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됐다고 고백한다. 그러한 체험과 묵회철학을 책에 담았다.



성령사역 바르게 분별하라

제이 리 그레디 | 베다니 | 324쪽

오늘의 교회와 사역들에 전염병처럼 퍼지는 돈에 대한 탐욕, 가짜 기적, 쇼맨십 등을, 그리고 예수보다는 오히려 '나'를 외치며 개인 이익을 추구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과 함께 성 문제로 인한 윤리·도덕적 타락 등 예민한 문제들을 용기 있게 밝히고 있다. 한 마디로 성경적 근본으로 돌아가자는 것.



RE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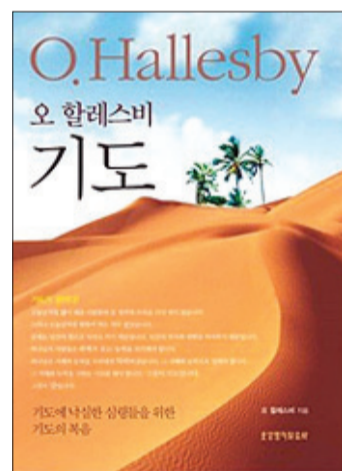
오 할레스비 “예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게 하라”

[기독교 고전 순례 5] 오 할레스비 기도

노르웨이의 루터교회 목사 오 할레스비(Ole Hallesby, 1879-1961)는 1879년 8월 5일 태어났다. 그는 목사와 신학자, 영향력 있는 지도자와 경건한 작가 중 한 사람이었다. 복음주의 진영에서 강력하고 경건한 지도자였던 그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정권이 노르웨이를 점령하자 노골적으로 항거하다 포로수용소에 투옥되기도 했다. 20세기 전반부 동안 노르웨이의 영적 지도자로 큰 영향을 미쳐 온 그는 자유신학에 대한 반대 운동으로도 유명하다. 그는 67권의 책을 썼는데, 주로 신학과 윤리학에 관한 저술들이다. 그러나 그는 경건 서적의 저자로도 유명하다. 그에 따르면, 기도란 마음 속에 예

수님을 모셔 들이는 일이다.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를 기도하도록 움직이신다. 기도는 말보다 깊은 것이다. 말로 표현되기 전 이미 영혼 속에 존재한다. 그리고 마지막 말이 입술 밖으로 나온 후에도 영혼 속에 남아 있다.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분명한 마음의 태도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러한 태도를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향해 드리는 호소로 인정하시는 것이다. 그것이 말의 형식을 취하든, 취하지 않든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할레스비는 말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로 인정하시는 마음의 태도란 어떤 것인가? 기

본적으로 두 가지가 요구된다. 첫째, 무력함을 자각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기도는 무력한 자가 최후로 의지하는 수단이다. 마지막 돌파구다. 사람들은 온갖 것을 다 해 보고 나서야 마지막으로 기도에 의지한다. 기도와 무력함은 나눌 수 없다. 무력한 자만이 참으로 기도할 수 있다. 무력함, 바로 그것이 가장 훌륭한 기도다. 무력함은 하나님의 부성(父性)을 향해 부르짖는 우리의 끊임없는 호소다. 둘째,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 무력함이 아무리 크다 해도 믿음이 없는 곳에 기도는 있을 수 없다. 무력함이 믿음과 연합할 때 기도를 낳는다. 성경은 많은 곳에서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말하



오 할레스비 | 생명의말씀사 | 192쪽

도한다면서 그분이 응답해 주실 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다. 믿음의 본질은 그리스도께 나오는 일이다. 참된 믿음은 스스로의 궁핍을 알며 스스로의 무력함을 인정해 예수님께 나아가 사태가 얼마나 나쁜지 말슴드리고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긴다. 무력함 중에도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진정한 기도는 무력함과 믿음의 열매다. 할레스비는 기도가 안식의 자리인 동시에 씨름의 장소라고 말한다. 기도는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벌이는 씨름이다. 또 그는 기도가 성령 충만을 받는 가장 중요한 방편이라고 말한다. /송광택 교수(총신대 평생교육원 한국교회독서문화연구회 대표)

세종 뇌보감 골드

“치매예방, 뇌졸중예방”
“기억력을 개선합니다”

“추억도 기억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세종바이오텍 SEJONGBIOTECH, INC.

세종 송보감

“춤추는 당뇨를 잡아라”
“막힌 혈관을 뚫어라”

세종 요로청보감

“요실금, 오줌소태 개선”
“전립선건강에 탁월한 효능”

진짜 발효삼? 고려 발효삼

“면역력 증진, 기력향상”
“캐슬로 만든 발효삼”

허락하신 자연으로 인간을 생각합니다. www.sejongbiotech.us

목회자분에게는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213-383-8899**

621 S. Virgil Ave #430 LA CA 90005(미주복음방송국4층)

초스피드 다이어트

1주에 9파운드~25파운드

초강력 정력제 + 원형탈모 대머리

치질
항문 문제로 하혈이나 통증으로 수술해야 하는 증상

자궁물혹이나 자궁근종
하혈이나 통증으로 수술해야 되는 분

미용침

구연산 판매합니다.

3대째 가업으로 이어온 영선한의원

배뺀는 숙변약 몸 전체 부종 빠지는 약

\$50 한달분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Clinic & Her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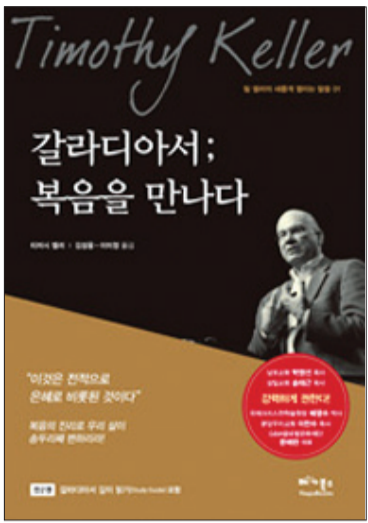
Tel: 213.380.7800 213.924.8189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 (6가와 아트모아)

영업시간: 월~금, 10시 ~ 5시 / 토 10시 ~ 2시

신간

‘복음’은 신자 되지 않은 사람을 위한 것일 뿐?



갈라디아서: 복음을 만나다

〈거짓 신들의 세상〉, 〈정의란 무엇인가〉, 〈살아있는 신〉 등의 저서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되돌아보게 했던, 뉴욕 리디머 장로교회(Redeemer Presbyterian Church) 티머시 켈러(Timothy J. Keller) 목사가 갈라디아서를 쉽게 풀이한 〈갈라디아서: 복음을 만나다〉로 한인 독자들을 찾았다.

갈라디아서는 단 6장으로 이루어진 짧은 서신이지만, 거짓 복음으로 혼들

리는 갈라디아교회를 향해 보내는 바울의 간절하고도 단호한 믿음의 편지였다.

켈러 목사는 저서를 통해 “기독교 내에 ‘복음’은 아직 신자가 되지 않은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인식이 퍼져 있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거쳐야 하는 기초 교리쯤으로 여긴다”며 “한번 회심하면 복음을 들여다 보며 깊이 이해할 필요가 없고, 더 수준 높은 공부가 필요하다고 단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바울은 짧은 편지에서 아주 단호하게, ‘그리스도인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이라는 진리를 강조하고 있다”며 “복음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통과해야 할 관문일 뿐만 아니라 그 천국의 일원이 살아가는 삶으로 그리스도께서 사람·교회·공동체들을 변혁시키는 방법”이라고 설명한다.

켈러 목사는 “바울은 신자 역시 비신자 만민이나 복음이 절실하다며 갈라디아 신자들 뿐 아니라 오늘날의 우리를 뒤늦게도 있다”며 “갈라디아서는 삶의 모든 순간에 필요한 복음의 모든 면을 담고 있는 다이내믹”이라고 소개했다.

저자는 신학적·시대적 맥락과 원어를 통해 갈라디아서를 구절마다 상세하게 풀어 깊이 있는 이해를 돕고 있다.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죄된 본성과, 거룩함을 갈망하는 인간의 새로운 영이 벌이는 끝없는 투쟁을 설명하며,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나아가야 할 바를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사역을 통하지 않고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 구원과 영생이 불가능하다”는, 단순하고도 우직한 복음의 진리를 강조하고 있다.

이 책은 바울의 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하심과 은혜를 하나하나 밝혀 그리스도인의 시선과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고 있으며, 우리의 인생을 복음에 완전히 맡길 것을 강력하게 권하고 있다.

또한 〈갈라디아서: 복음을 만나다〉는 개인의 묵상과 크고 작은 그룹의 성경공부에 더할 나위 없이 적절한 해석서다. 실제로 이 책에는 이런 목적을 위해 ‘갈라디아서 깊이 읽기’라는 가이드북이 별책으로 붙어 있다. 티머시 켈러 목사는 갈라디아서를 시작으로 사사기, 로마서, 야고보서, 요한복

음 등 ‘팀 켈러의 새롭게 열리는 말씀’ 시리즈를 선보일 계획이며, 모든 주해서에는 성경공부를 위한 가이드북도 같이 선보인다.

한편, 역자인 김성웅 목사(부전교회 부목사)는 최근 서울 가톨릭청년회관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바울의 메시지는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으로, 이 책은 대다수 신앙인들이 고민하는 내용을 말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목사는 “한국은 특유의 유교 중심 체면 문화 때문에, 예수를 믿고 잘 살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으로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많다”며 “저자가 말하는 복음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순종과 성품과 행위를 보시고 사람을 다시 안기로 한 사실을 믿는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복음이라는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면 삶의 동기가 달라질 것이다. 이 책은 한국교회에 던지는 메시지”라고 말했다

티머시 켈러 목사는?

뉴욕 맨해튼에서 가장 생기 넘치는 회중으로 불리는 뉴욕 리디머 장로교를 이끌고 있는 목회자 겸 저술가.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에 철저히 의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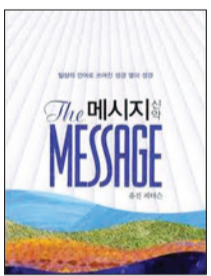
티머시 켈러 목사

는데도, 방황하는 젊은 화이트칼라들이 그의 목소리에 열광하고 있다. 대도시의 전문직 종사자들, 미국 문화계와 그 아이디어를 주도하는 청년들이 그를 삶의 멘토로 가슴에 안는다. 철학자 앨러스 윌러드가 그를 “이 시대에 가장 주목할 목회자”로 꼽았고,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그를 “가장 영향력 있는 목회자”로 보는 이유가 여기 있다.

버크넬 대학교에 다니면서 신앙심을 얻은 그는, 1972년 졸업 후 고든-콘웰 신학대학과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에서 신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목사 안수를 받은 후 버지니아에서 9년간 봉직했고, 부인과 함께 도회지 선교에 힘을 쏟기도 했다. 특히 2001년에 소위 ‘교회 개혁센터’를 열어 지금까지 세계 각지에 100여 교회의 창립을 도왔고, 전 세계 목회자들이 그의 전도 방식을 배우기 위해 꾸준히 뉴욕을 찾고 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에 관한 논란을 보며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읽게 한다면, 그것으로 족하지 않을까



메시지 성경

나는 이 책이 번역된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 마뜩치 않았다. ‘우리는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삶을 반영하는 성경을 써야 하는데, 그 책임을 피터슨의 것으로 방기하고 미루는 것이 아닐까’라는 걱정을 했기 때문이다. 자극과 도전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말이다.

그러나 바로 그러하기에 환영할 수 있었다. 〈메시지〉가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는 각자가 만든 〈메시지〉 성경을 써 내려가야 한다.

〈메시지〉의 신앙성경을 죽 읽어보면, 산상수훈의 여러 대목에서 마땅치 않은 곳이 여럿 눈에 띈다. 지나친 의역이 잦다는 생각이다. 원래 그런 책이니, 이 책에서 히브리어나 헬

라어 원어를 들이대며 틀렸다고 너무 진지하게 대응하는 것은, 시쳇말로 하면 ‘웃자고 말한 것을 죽자고 대드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이것이다. 〈메시지〉는 통독용이지, 정독용은 결코 아니다!

이러한 논란은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미국도 똑같은 모양이다. 성경을 성경으로 읽는 것이 상당히 힘든가 보다. 그런 이들에게 성경을 재미있게, 쉽게,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이런 의역 성경이 꼭 필요하다.

그러나, 정독용은 아니다. 다시 말해 묵상용도, 예배용도 아니라는 것이다. 즉 〈메시지〉로 경건의 시간(Quiet Time)을 갖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나는 몇몇 QT 책들에서 개역개정판 성경 옆에 〈메시지〉를 같이 병기한 것을 심히 우려한다.

묵상은 한 단어 한 구절을 곱씹어야 하는데, 정확성에 기반하지 않은

번역판을 묵상하라고 제시한 것은 먼저 묵상에 대한 오해이고, 또한 〈메시지〉에 대한 오해이기도 하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예배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반대한다.

다만 성경공부를 하거나, 앞서 말한 대로 통독하기 위해서, 그리고 개역개정이나 새번역, 공동번역 등과 함께 읽는 것은 적극 환영한다. 이미 출판사가 책 표지에서부터 ‘딱 하니’ 박아 두지 않았던가. “일상의 언어로 쓰여진 성경 옆의 성경”이라고. 그러므로 앞에서 말한 대로 대한성서공회에서 번역한 여러 다양한 번역성경들과 같이 보면 그만이다.

나는 〈메시지〉 신약 부분을 통독하면서 큰 은혜를 받은 적이 있다. 누가복음 16장 9절 말씀이었다. 당시는 교회 사역이 참 어려웠던 때라 여러 방법들을 놓고 고민하며 기도한 때였다.

“모든 역경을 생존을 위한 창조적인 자극제로 삼고, 가장 본질적인 것

에 너희 관심을 집중하여라. 그러면 너희는, 선한 행동에 만족하면서 그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살게 될 것이다.”

아는 대로 헬라어 본문과는 상당히 동떨어진 번역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나는 이 구절을 통해, 아니 이 해석 그대로 실행했



김기현 목사(로고스교회)

다. 그래서 현재 내가 시무하는 로고스교회가 생겨났다. 나는 이를 〈메시지〉 성경의 힘이라 생각한다. (저자인) 유진 피터슨은 머리말에서 “읽는 것이 먼저다. 일단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 책은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읽게 한다. 그러면 그것으로 족하지 않을까. 〈메시지〉는 참 좋은 책이다. 물론 성경처럼 읽을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기 위해 읽어볼 수 있는’ 참 좋은 책이다. 역시 유진 피터슨이란 생각이 든다.

Advertisement for WCIU conference. Text: '이제부터 수련회는 "윌리엄 케리 국제 대학교"에서!' Includes address: 1539 E. Howard St. Pasadena, CA 91104. Phone: 626.398.2415. Website: www.wciuproperties.com/

Advertisement for Gold Finger Tailor. Text: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전화주시면 출장 주문, 가봉 완성 후 배달', '맞춤 양복 이라서 좋습니다. 한올한올, 장인의 혼을 담은 맞춤 양복, 고객의 마음까지 담은 맞춤 양복, AS는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Includes contact info: 975 S.Vermont Ave.#102, Los Angeles, CA 90006. T.213.386.5858 / C.213.663.9556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웨밀리 자동차

FAMILY AUTO SALES

새차 리스, 중고차 최고가 매입

HONDA, TOYOTA, LEXUS, BMW, MBZ
(하이급차, 고급차, 유럽차, 일제차)

Tel. 323.737.5900 Fax. 323.737.5987

933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전문

(213) 342-7776

월서+킹슬리

페인팅 (PAINTING)

마루 (Hard-wood Flooring)

정직 (HONESTY)!

(213) 923-2915

U.S. ENTERPRISE Co.

*HAND MEN AVAILABLE

법률 문제로 답답한 가슴을!!!

공인 법무사(CERTIFIED L.D.A & PARALEGAL #227 / BOND 5785BF11090)인
제가 속 시원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한테 가시기전에 "꼭 먼저" 만나 보아야 할 사람입니다!

퇴거, 파산, 이혼, 이민, 민사소송

기타 각종 법정 서류 작성

714-349-8934 (한국말) 잔 안

714-667-0728 (영어)

2112 N. MAIN ST. #290, SANTA ANA

213-487-0728 (영어)

1543 W. OLYMPIC BL. #422, LA

TONERSUM

가격 때문에 칼라 레이저 프린터 사용을 망설였던 목회자분들에게 희소식!



Only \$99.99/month

(up to 2000 pages)

프린터 판매 및 리스
삼성토너 스페셜 리스트

HP, Brother Big Sale Tel. (626) 802-5712

사고 판다다 New & Used Buy & Sell

각종 조립식 선반 전문

아외용 천막 Canopy Size (5'x5') (10'x10') (10'x20')

상점 및 그리지용 Boltless Shelving

90센트 마켓 선반, 창고 선반 수량 불문 현찰 매입

창고용 Pallet Rack

중고 선반 대량 보유

조립식 선반을 전문으로 취급하여 딜러임을 보유 선반 전문 회사

(323)855-5687 / (213)200-3050 / (213)623-5491

646 S. San Pedro St. Los Angeles, CA 90014 Downtown LA (Between 6th, 7th St)

커튼 전문

가 주 L.A. 커튼

"우드셔터, 각종 블라인드, 썬 스크린 롤러 Shade"

거리불문 무료견적

Tel. 213.447.1101

43406 Standcliff Ave. Lancaster, CA 93535

K.T. 택배 T. 213-365-8588

말도 안되는 가격 \$ 6.99 초고속 픽업 & 배송!!

전화 한통화로 당일무료 픽업!

무료포장 (박스, 충격흡수제 무료)

최저 가격!! 인터넷 사업자 대박우대

소량화물 4개중 1개 공짜!

"가격은 낮추고 서비스는 최고로 모시겠습니다"

법무사 사무소 법적 해결

소장: Kenny Oh (323)377-5702 ko7law@gmail.com

변역 (학술/사업/개인) | 법정통역, 소송/방어서류

민사법 의도/과실/사기/부당 행위 피해, 입주자분쟁(소송/방어) 접근 금지 법원 명령

계약법 작성/분석/분쟁/수금문제 가정보법 약식/일방이혼

1543 W. Olympic Bl. #580 L.A. CA 90015 Law Office of R. Song

모/든/문/제/체/류/신/분/과/무/관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귀국 · 시내 · 타주이사 · 차량운송

한국식 포장이사도 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www.easy2424.com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전기 . 철공

계단, 펜스, 창틀, 보조문

용접, 게이트

경남 철공소

모터 수리

213-256-4884

A-1 정비 오일 교환

엔진 & 미션 전문

트랜스미션

타이밍벨트

브레이크

타입정비

10% 할인

\$23.99 *tax 6cyl.
\$18.99 *tax 4cyl.
\$28.99 *tax 8cyl.
(Carbon Filter Extra)

Tel. 323.737.2922

Trans (323)731-0613
Engine (323)752-2971

커피 미니 자판기

CoffeeTreeUSA




따스하고 맛있는 커피를 저렴한 가격으로 간편하게 즐기세요.



T.213-272-7502

www.Coffeetreeusa.com

1513 S. Victoria Ave Los Angeles, CA 90019

밀크커피/한국차(유자차, 검은콩 울무차, 대추 생강차) 핫초코/카푸치노/블랙커피

한방생리대 도.소매

G. Together Inc.

- 인삼생리대
- 익모초생리대
- 한방생리대



Edward Kim 김인태, CEO
213-392-2323 (Korean) 213-500-5896 (English)
3544 W. 3rd St. Los Angeles, CA 90020 / G_Together_Inc@yahoo.com

베데스다 의료 봉사센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의료혜택을 못받는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치과와 약, 한방등의 진료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213-384-7078

- 시온마켓 내 -

치우차우만두

- 찐빵
- 고기만두
- 김치만두
- 야채만두
- 물만두
- 군만두

교회 단체주문 환영합니다. 냉동만두 판매/매달합니다.



213.368.0922

3500 W. 6th St., Suite 100 Los Angeles, CA 90020

선녀탕(仙女湯)매매

Meaning yellow matter 금줄에서 나오는 물
The natural minerals, sulfur, Calcium and magnesium with arsenic(비소).
최상급 수질, 최고수준 자연온천을 매매합니다.

선녀가 내려와 목욕할 정도의 최고급 수질 온천을 일명 선녀탕이라고 하는데 각종 천연 미네랄이 풍부하여 노상 온천 중에 최고라 할 수 있습니다. Lake Isabella 근처 최상급 수질의 선녀탕, 각종 천연 미네랄이 풍부하여 치료와 미용에 으뜸인 자연 온천에 귀하신 분들의 투자, 동업 나서는 매임을 원하시는 분들을 찾습니다.

궁궁하신 점이 있으시면 전화주세요. 818-371-0763

전단지

문의 : 213-739-0403

기독교일보 광고사업팀

one stop

디자인에서 인쇄, 배포까지
그냥 한번에 해 주는데 없을까?

교회 행사용 전단지, 브로셔, 교회배너..

홍민기 목사가 교무실 문 박차고 들어간 이유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청구안 국무회의 통과에 한기총 '환영'

미래목회포럼(이사장 정성진 목사, 대표 오정호 목사)이 11일 서울 종로구 연지동 기독교연합회관 17층 강당에서 '미래를 여는 특화된 목회'라는 주제로 2014년 기획목회 사역설명회를 가졌다.

여기에서 홍민기 목사(부산 호산나교회)는 '다음세대의 부흥전략'이라는 주제로 자신의 청소년 사역 경험과 함께 청소년 선교의 방법과 부흥 방향을 강연했다. 홍 목사는 "다음세대 사역은 잘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안 하는 것"이라며 "아이들은 관계가 형성되고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언제든 변화된다. 다음세대 사역에 재정과 시간을 투자하고, 청소년 사역자를 길러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목사는 초등학교 6학년 때 가족과 함께 도미했고, 목회자가 되어 다시 서울에서 청소년 사역을 감당했다. 교회 성도수는 2천명을 넘었지만, 고등부 학생들은 40명 정도밖에 안 됐다. 홍 목사는 창피함을 무릅쓰고 매일 아침 학교 앞에 서서, 기가 죽어 등교하는 학생들과 하이파이브를 했다. 하교 때도 학교 앞에서 있다가, 학생들을 불러 모아 짜장면과 떡볶이를 사 먹였다. 교회 나오라는 소리는 일절 하지 않고, 먹을 것만 사 먹이고 돌려보냈다. 그런데 학생들과 먼저 관계가 형성되니까, 학생들 스스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주일 말씀도 집중해서 들었다.

당시 홍 목사가 섬기던 교회는 달동네에 있었는데,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상고에 다니던 여학생이 학교



호산나교회 홍민기 목사가 강의하고 있다

에서 교사에게 가난하다고 무시당하며 뺨까지 맞은 것을 고백하자, 홍 목사는 교무실 문을 박차고 들어가 그 교사와 크게 싸웠고, 교사는 교장으로 부터도 책망을 들었다. 여고생은 16장에 달하는 감사 편지를 보내었다. 가난하고 부모 없는 학생들 6명이 홍 목사를 '아빠'라고 불렀다. 홍 목사는 성격이 안 좋은 학생들에게 공부까지도 지도할 정도로 열정적이었다.

홍 목사는 "청소년 사역자들이 아이들과 가까이 해야 하는데, 교회에서 설교 준비만 하고 있다. 아이들과 함께해야 설교도 나오는 것이다.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아이들에게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고 우리의 꿈이라고 해왔

다. 아이들을 목적 없이 만나서 관계를 맺어야 한다. 아이들은 무조건 관계 형성을 통해 인성이 변화된다. 지속적으로 만나야 한다. 비싼 어른 집회 한 번 덜 하고, 아이들 집회 한 번 더 하는 것이 훨씬 좋다"고 했다.

홍 목사는 아이들을 늘 가까이 했고, 항상 아이들 편에서 생각했다. 그러나 교회 청년부는 매달 40명씩 급속도로 늘어나, 예배도 나눠 드리게 될 정도로 부흥했다. 마지막으로 홍 목사는 "교회는 다음세대를 위해 투자해야 한다. 그리고 각 교회에서 청소년 사역자들을 양성해야 한다. 한 명의 사역자를 통해서 아이들은 변화된다"고 전했다. 신태진 기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홍재철)가 5일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청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한기총은 성명을 통해 "그동안 종북(從北)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통합진보당의 해산 청원을 강력히 주장해 왔다"면서 "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치는 정당에 대한 정부의 해산제소는 만시지탄(晩時之歎)이나 마땅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서도 법리에 따라 정확한 판결을 내려 대한민국의 정당이라 할 수 없는 행위를 한 것이 분명히 드러났다. 그리고 통합진보당의 통일 강령이나 민주민주주의의 강령 등도 북한을 일방적으로 추종하는 것이 밝혀진바 정당 해산을 위한 절차는 속히 진행되기를 촉구한다."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청구안 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을 환영하며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5일(화)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법무부가 긴급안건으로 상정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의 건'이 심의, 의결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한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그동안 종북(從北)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통합진보당의 해산 청원을 강력히 주장해 왔다.

대한민국 헌법 8조에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

될 때에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 심판에 의해 해산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치는 정당에 대한 정부의 해산제소는 만시지탄(晩時之歎)이나 마땅한 것이다. 또한 헌법재판소에서도 법리에 따라 정확한 판결을 내려 대한민국의 정당이라 할 수 없는 행위를 한 것이 분명히 드러났다. 그리고 통합진보당의 통일 강령이나 민주민주주의의 강령 등도 북한을 일방적으로 추종하는 것이 밝혀진바 정당 해산을 위한 절차는 속히 진행되기를 촉구한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대한민국에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존행하는 보수 정당이나 단체 등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하며, 앞으로도 정부는 민주적 질서 유지에 힘쓸 뿐 아니라 이에 반하는 정당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을 요청한다. 2013년 11월 5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

한국교회 갱신 위한 시도 '선교적 교회 운동'

한국복음주의실천신학회-개혁주의생명신학실천신학회 공동학술대회

한국복음주의실천신학회와 개혁주의생명신학실천신학회가 공동으로 정기학술대회를 4일 신성중앙교회(담임 김연희)에서 개최했다.

'선교적 교회론과 교회 갱신 방안'이란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 주제논문 발표를 맡은 합동신학대학교 이승진 박사는 "80년대 이후 북미권 교회에서 그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선교적 교회 운동(missional church movement)이 한국교회에서도 소개되면서 침체에 빠진 한국교회에 교회 갱신을 위한 전환점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히고, "선교적 교회론의 주된 관심은 선교의 중요한 목회 사역 중 하나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존재론적인 본질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세상 속으로 파송받은 교회로서의 선교(mission as the church)로 간주하는 것"이라 설명

했다. 이 박사는 이어 "선교적 교회론이 환골탈태를 요청받는 한국교회에 나름의 적실성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는 이유는, 한국교회가 외형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존재론적인 본질로서의 하나님의 통치를 상실한 상황에서 그 대안을 목회 프로그램이나 교회의 기능론적인 구조 개선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과 존재론적인 근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때문"이라 이야기 했다.

그러나 그는 "선교적 교회론이 장점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존재론적인 근거와 기능론적인 양태를 하나로 통합하지 못하고, 이분법적으로 구분한 다음에 다분히 존재론적인 본질을 더욱 강조하면서 기능론적인 양태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약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복음주의실천신학회와 개혁주의생명신학실천신학회가 공동으로 4일 신성중앙교회에서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승진 박사는 "교회가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세속 사회와 주변 문화 속에 구현하는 하나님 나라의 대행자이자, 특정한 환경 속에서 유기체로서 교회 주변 문화와 일정한 유입과 유

출의 상호 작용을 진행하면서 생명체 다룬 현상을 나타낸다"고 말하고, "교회 갱신을 추구하는 지역 교회 목회자는 반드시 유기체적인 생명체로서의 교회가 복음과 문화 사이의 상호

역학 관계를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관해 조사, 분석하고 그런 조사 결과를 실제 교회의 목회 구조에 반영함으로써 실제적인 교회의 갱신과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했다. 장지원 기자

척추 전문 새로운 한방병원

비 수술 척추 디스크치료 척추 한방 병원

비 수술 척추 **추나 치료**
척추 교정으로 **척추질환**과 **척추 통증 치료 예방**이 가능합니다.

특진안내

- ▶ 중풍
- ▶ 안면신경마비
- ▶ 척추디스크 요통
- ▶ 목디스크, 어깨통증
- ▶ 무릎 관절염
- ▶ 위장병, 변비
- ▶ 갱년기 장애
- ▶ 산전산후 보약
- ▶ 어린이보약, 성장탕
- ▶ 심장병, 노이로제
- ▶ 두통, 치통, 산후통
- ▶ 관절통

진료과목

- 침구과
- 한방 소·아과
- 한방 내과
- 한방 신경정신과
- 한방 산부인과

원장 정재수
40년 경력 척추 자세교정 전문가

T. 213-219-2739

3513 W. Olympic Blvd #102,
Los Angeles, CA 90019



www.myopenbank.com



오픈뱅크 청지기 프로그램

OPEN STEWARDSHIP FOUNDATION

오픈뱅크의 커뮤니티 사랑법! 청지기 프로그램

한인사회와 주변의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비영리 단체들의 현 프로그램을 활성화 및 확장하기 위해 [Open Stewardship 재단]에서 드리는 지원금 프로그램입니다. 이 지원금을 통해 미주지역사회의 건강과 복지향상에 기여해 주실 기독교단체 및 비영리 봉사단체들은 지금 바로 오픈뱅크 웹사이트를 방문하셔서 지원금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격요건 및 지원금 규모 등 자세한 내용은 오픈뱅크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세요.



접수기간: 2013년 12월 31일까지
발표일자: 2014년 2월 28일 (금)

213.892.1197 | 1000 Wilshire Blvd., # 250, Los Angeles, CA 90017

지원금 수혜자는 오픈뱅크 웹사이트,
신문광고 및 안내우편을 통해 발표됩니다.

www.myopenbank.com



*Open Stewardship 재단이란?

Open Stewardship 재단은 지역사회 봉사를 통해 2011년 오픈뱅크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단체입니다. 동 재단은 매년 수익의 10%를 지역사회에 환원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설립되었습니다. 오픈뱅크에서는 본 지원금으로 종래의 자금제공 방식으로는 불충분하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단체들이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CEO MIN KIM

Wilshire Office
1000 Wilshire Blvd, Suite 100,
Los Angeles, CA 90017
Telephone (213) 892-9999

Fashion District Office
747 E. 10th Street, Suite 310,
Los Angeles, CA 90021
Telephone (213) 892-9999

Gardena Office
15435 S. Western Ave., Suite 100-D,
Gardena, CA 90249
Telephone (310) 354-6000

Aroma Office
3680 Wilshire Blvd., Suite 101,
Los Angeles, CA 90010
Telephone (213) 401-3500

Buena Park Office
(Opening Soon)
5141 Beach Blvd., Unit E&F
Buena Park, CA 90621

